女골프 일본과 국가대항전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5일 금요일 제3110호 www.metroseoul.co.kr

천안함을 기억합니다 4일 오후 경기 평택 해군 제2함대사령부 안보공원에 마련된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에서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故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와 조유근 천안함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전시시설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사 '소비자 보호 평가제'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신용카드 1포인트 사용
7일 이내 대출철회 가능
소액 금융민원 신속처리

정책 종합계획 시행

내년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를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고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500만원 이하 소액 금융 민원은 신속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감독업무 전담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와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금융분야의 소비자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종합계획에서 가장 초점을 맞춘 것은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보호를 강화한 점이다.

정부는 우선 신용카드사의 최소적립 포인트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 1만포인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탈회 후 재가입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을 탈퇴한 소비자의 포인트도 일정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특히 금융회사의 구매권유 등에 따라 충동적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우선 줄 예정이다.

청약철회권은 대출 상품에 대해 7일 이내의 숙려기간을 주는 것으로 소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다.

경미한 민원은 신청순서와 무관하게 빨리(패스트 트랙) 처리하고 효율적 분쟁조정을 위해 5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소비자가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객관적으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업과 분리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이는 기존 판매사 주도의 구매권유 방식 판매 뿐 아니라, 소비자가 자문을 통해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판매채널을 열어주는 것으로 펀드 슈퍼마켓 등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해 자문 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구현될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줄 계획이다. 또 내년에 서민금융 상품 개편 종합 방안을 마련하고 주거·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무조정 신청자가 중도탈락기간에 연체한 미납금을 분할상환할 때는 기존 채무조정 효력이 부활하는 등 채무조정을 받기 위한 신청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보험업에만 있는 판매행위규제 위반 과징금을 전 업권에 적용한다. 금액도 기존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이동 판매사에서 판매 이동 신청부터 신규 계좌 개설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펀드판매사 이동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부업 등의 과도한 광고도 정비하며 패스트트랙과 집단 분쟁조정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해 민원 등에 따른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미선기자 kmr1203@metroseoul.co.kr

대곡~소사 복선전철 추진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BTL)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일환으로 국토부 철도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등 관계자가 참석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사업비 분담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대곡~소사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가 사업비 일부 분담의사를 밝혀 세부 추진방안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세부 논의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주민건의 사항 등을 해결해 간다는 계획이다.

대곡~소사 복선전철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대곡역)에서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9.6km(5개 역사, 16분 소요)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북측으로는 경의선과 직결되며, 남측으로 현재 공사중인 소사~원시 구간을 거쳐 서해선과도 연결된다.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조4468억원 규모다.

이 사업이 완료(2021년 말 예상)되면 복잡한 수도권을 우회해 호남·충청권의 여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서해안축 간선철도망이 구축된다. 경부선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 처리해 경부선의 선로용량 부족을 해소하고, 철도 화물운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두탁기자 kimdt@

이 주의 개봉작

덕수리 5형제
장르 코미디 스릴러/감독 전형준/출연 윤상현 송새벽 이광수

만났다하면 물고 뜯고 싸우는 원수 같은 다섯 형제가 부모님의 부름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나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지자 형제들은 부모님을 찾아 나선다. 그때부터 부모님이 살고 있던 덕수리 마을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다.

목숨
장르 다큐멘터리/감독 이창재

호스피스는 삶의 끝에서 잠시 머물며 이별을 준비하는 곳이다. 누구가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한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임종 앞에 진심으로 사랑하며 처음인 듯 뜨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갈증
장르 범죄·미스터리/감독 나카시마 테츠야/출연 야쿠쇼 코지 고마츠 나나

아키카주는 아무 쪽에도 쓸모없는 무능한 전직 형사이자 분노조절장애를 지닌 구제불능 아버지다. 실종된 딸 카나코의 행방을 쫓던 그는 딸을 찾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도 없었던 진실과 마주한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테레즈 데케루
장르 드라마/감독 클로드 밀러/출연 오드리 토투, 질 를르슈, 아나이스 드무스티에

1928년 프랑스 랑드 지방 부유한 집안의 딸인 테레즈는 드넓은 숲을 소유한 마을 지주 베르나르와 정략결혼을 한다. 모든 것이 안정되고 편안해지리라 기대하지만 가부장적인 남편과 속물적인 시부모와 함께 사는 삶은 무미건조하기만 하다.

인간적으로 재해석한 모세

이 주의 선택

스펙터클의 향연…평이한 마무리 아쉬워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

모세의 삶처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어디 있을까. 출생의 비밀, 그리고 신의 계시를 받아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나는 운명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겪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다를 반으로 갈랐다는 홍해의 기적과 '십계'의 전설까지 있으니 영화적 소재로는 더할 나위가 없다.

할리우드는 이미 여러 차례 모세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 세실 B. 드밀 감독이 1923년과 1956년 두 번에 걸쳐 연출한 '십계', 그리고 1998년 드림웍스가 만든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가 대표적이다. 이 작품들은 모세의 영웅적인 면모와 종교적인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나 리들리 스콧 감독은 모세의 영웅담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가 연출한 '엑소더스: 신들과 왕들'(이하 '엑소더스')은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작품이다. '다크 나이트' 시리즈로 친숙한 크리스천 베일이 극중 주인공인 모세스를 연기했다.

영화 속 모세스는 쉽게 같은 것은 믿지 않는 이성적인 인물이다. 이집트 왕의 신임을 받고 있는 장군이자 왕권을 물려받을 람세스(조엘 에저튼)와 사촌 지간인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출생의 비밀을 안 뒤에도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민에 빠진다. 영화는 신의 계시 앞에서 끊임없이 고뇌하면서도 결국 히브리인의 지도자로 나서는 모세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

스펙터클의 향연이 관객의 시선을 붙든다. 익스트림 롱 쇼트(아주 멀리서 넓은 지역을 묘사하는 촬영기법)로 담아낸 화면은 대서사극다운 웅장함을 느끼게 한다. 이집트를 뒤덮는 10가지 재앙의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물이 빠진 홍해에서 펼쳐지는 모세스와 람세스의 마지막 대결은 장엄한 느낌까지 준다. 슈퍼히어로 배트맨을 인간적인 인물로 만들어냈던 크리스찬 베일이 수염과 주름으로 가득한 얼굴로 인간적인 모세스를 그려가는 모습도 인상적이다.

다만 '신들과 왕들'이라는 부제에서 기대하게 되는 모세스와 람세스의 대결이 예상만큼 극적인 긴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점은 아쉽다. 신이 되고 싶었던 인간과 신의 대리자가 되기를 거부하려는 인간의 대결은 조금 평이하게 마무리되는 감이 없지 않다.

오히려 인상적인 장면은 영화 후반부의 모세스와 여호수아의 대화에 있다. 모세스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툼도 많아지는 법"이라며 "우리가 자유를 얻은 뒤에도 과연 그럴까?"라며 꿀과 우유가 흐르는 고향인 가나안 땅(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을 되찾으려는 자신들의 행동에 의문을 던진다. 먼 미래에 펼쳐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암시하는 이 짧은 신은 '엑소더스'가 지닌 가장 정직하면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장면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중년도 청년도 하나 되는 음악의 힘

'악사들' '파티51'… 이색 소재 음악 다큐멘터리

HOT SCREEN

음악의 힘은 강하다.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꿀 무기가 되기도 한다. 꿈과 열정, 그리고 희망과 용기가 음악 속에 녹아있다. 음악으로 하나가 되는 이들의 이야기에는 유쾌함과 감동이 있기 마련이다.

12월 이색적인 소재의 음악 다큐멘터리가 연이어 개봉한다. 4일 개봉하는 '악사들'(감독 김지곤·왼쪽 사진)은 음악에 살고 죽는 평균 나이 60세의 다섯 남자가 주인공인 다큐멘터리 영화다. 70~80년대 나이트클럽에서 활약했던 다섯 명의 악사들이 다시 뭉친 밴드 '우담바라'가 자신들이 진짜 원하는 음악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 여정을 담았다.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베이시스트 이승호, 음악에 대한 자존심이 강한 드러머 이현웅, 색소폰 연주자인 리더 해광 스님, 실력파 건반주자 곽기대, 싱어송라이터 겸 여정수로 구성된 다섯 악사들의 음악과 인생 이야기가 이장희 송골매 나훈아 김정호 등 7080 가수들의 히트송과 함께 펼쳐진다. 영화는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와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통해 관객들과 처음 만났다. 부산을 배경으로 평범한 중년 아저씨들이 펼치는 음악을 향한 여정이 잔잔한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가다.

오는 11일에는 홍대 인디 신의 또 다른 면모를 만날 수 있는 영화가 개봉한다. '파티51'(감독 정용택·오른쪽)은 홍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 자립음악생산자조합 소속 뮤지션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영화는 지난 2009년 강제철거 위기로 홍대 앞의 '작은 용산'으로 여겨졌던 식당 두리반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나선 이들의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 그 과정에서 벌인 공연 '뉴타운 컬처파티 51+'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다.

무엇보다도 '파티51'은 하헌진, 회기동 단편선, 밤섬해적단, 야마가타 트윅스터 등 개성 넘치는 음악으로 인디 신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지지하고 있는 자립음악생산자조합 뮤지션들의 음악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악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작품이다. 공연할 장소조차 구하지 못해 점점 밀려나는 언저리 뮤지션들의 웃기면서도 슬픈 자립 성장기가 청춘들을 위한 흥겨운 응원가로 다가갈 것이다. /장병호기자

겨울 추위 녹일 '록의 열정' 공연

잭 블랙의 테네이셔스 디·'모던록 대부' 이승열 콘서트

Top Stage

겨울 추위를 녹일 '록의 열정'이 12월 첫째 주말 음악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 '스쿨 오브 록',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와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의 목소리로 유명한 배우 잭 블랙이 이끄는 밴드 '테네이셔스 디'가 오는 5일 오후 8시와 6일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할리우드 스타 잭 블랙과 기타리스트 카일 개스로 이뤄진 테네이셔스 디는 1997년 코미디와 라이브쇼가 함께하는 미국 HBO의 TV쇼 '테네이셔스 디'에 출연하면서 밴드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데뷔 앨범 '트리뷰트'(2001)는 미국에서 플래티넘(100만 장 판매)을 기록했다. 직접 대본을 쓴 영화 '테네이셔스 디 인 더 픽 오브 데스티니'(2006)의 OST는 빌보드 앨범 차트 8위, 영국 차트 10위에 올랐다.

테네이셔스 디의 첫 내한 공연에는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와 신센지가 게스트로 함께 할 예정이다.

밴드 술탄 오브 더 디스코는 5일 스페셜 게스트로 무대에 선다.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밴드는 올 한 해 동안 싱가포르, 영국, 일본 등 국제 무대 투어를 마쳤다.

마지막 공연 날인 6일에는 밴드 신센지가 등장한다. 최근 세 번째 정규 앨범 '3.0'을 발매한 신센지는 국내와 동남아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며 선전 중이다. 테네이셔스 디의 첫 내한 공연은 19세 이상만 관람 가능하다.

인기 드라마 tvN '미생' OST '날아'로 대중에게 주목 받은 '모던록 대부' 이승열은 오는 6일 홍대 예스24 무브홀에서 '2014년 이승열 콘서트, 겨울 - 마음의 벽'을 연다.

'2014년 이승열 콘서트'는 사계절마다 다른 주제로 공연을 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이번 공연은 사계절 연작의 완결편이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앞선 세 번의 공연은 동적을 테마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인 '겨울 - 마음의 벽'은 스탠딩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오랜 시간 사랑 받은 '기다림', '시간의 끝', '비상'부터 정규 1집 수록곡 '시크릿', 애니메이션 '나루토 질풍전'의 오프닝으로 쓰인 '푸른', 유앤미블루(이승열·방준석)의 노래 '쏘' 등을 선보인다. 공개되지 않은 신곡까지 포함해 그동안 들어보기 힘들었던 곡 구성으로 무대를 준비했다. /권효정기자

metroseoul.co.kr

이승열, 테네이셔스 디 첫 내한 공연. (왼쪽부터)

내년 다이어리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피어나길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저의 오래된 습관 중 하나는 필요 이상의 계획을 많이 세우고 그것을 또 길게 다져 다이어리에 적는 것입니다. 가끔 지키지 못했을 때 자책하는 행동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계획을 이뤘을 때와 이루지 못했을 때를 비율로 그날의 점수를 매겨 스스로를 채찍질한 적도 있지요. 딱히 무언가 잘 이뤄놓은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올해 후반부터 저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 다이어리에는 최소의 것만을 적기로 했어요. 헐렁해진 다이어리를 보면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기도 했지만 역시나 새해가 다가오니 어김없이 다이어리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사은 이벤트용 다이어리를 받아볼 속셈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커피를 마시며 잔 수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결국 선물이 아니네 하면서도 스티커를 다 채워 다이어리를 받아보려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작품은 금속공예가인 데이비드 크라코프(David Kracov·1968~)의 작품입니다. 그는 금속공예가와 더불어 조각가, 화가 및 애니메이터인데요. 그의 작품 속에서 꾸준히 등장하는 주제는 나비입니다. 종이를 잘라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금속으로 수많은 나비를 만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날갯짓을 금속으로 만든 것을 보면 작품 제목인 '나비효과'처럼 가벼운 효과도 모이고 쌓이면 무게 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재료로써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작품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떠난 아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어린 영혼들을 날아가는 나비로 표현한 것이기도 해요. 그는 이 작품의 판매기금으로 아이들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그의 작품 속 다이어리에서 피어오르는 나비들처럼 그리고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의 내년 다이어리에는 올해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올 크리스마스는 한국 팬과 함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연말 전국 순회

세계적인 소년 아카펠라 합창단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사진)이 올해 크리스마스에 한국 팬과 만난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과 22일 오후 7시30분 용인포은아트홀을 시작으로 성남, 고양, 과천, 인천, 울산, 양산, 태안, 강릉에서 전국 순회 공연을 연다.

이번 공연은 보이 소프라노의 진수를 보여 줄 최정상 솔리스트들을 포함한 24명의 소년들의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클래식 명곡인 모차르트 '자장가', 브람스 '자장가', 비발디 '글로리아', 카치니 '아베 마리아'와 대중적인 '넬라 판타지아', 캐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징글벨' 등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만의 스타일로 편곡된 프랑스 샹송 메들리, 헨델의 '할렐루야' 등 다양한 장르와 매력적인 곡 구성으로 감동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8세부터 15세까지 총 100여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다.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음악원은 학교에서 최소 2년 동안 음악 수업과 학업을 병행한 학생들을 오디션으로 선정, 솔리스트, 알토, 테너, 베이스로 구성된 단 1개팀만 월드 투어를 다닌다.

이들은 1971년 첫 내한 공연을 가졌으며 매년 전국 전석 매진 기록을 이어가며 국내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전효진기자

모창의 神들 한자리에 모인다

'히든싱어' 역대 시즌 '통합 왕중왕전' 6일 생방송

주말엔 본방사수

전현우

모창의 신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6일 오후 11시 생방송되는 JTBC '히든싱어'의 통합 왕중왕전 특집을 통해서다.

지난 2012년 시작한 '히든싱어'는 토크쇼와 버라이어티 오디션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구성으로 시청자의 사랑을 받으며 장수했다. 이번 통합 왕중왕전은 지난 시즌을 되돌아보는 결선 무대로 마련됐다.

조승욱PD와 MC 전현무, 조좋경 보컬트레이너 그리고 톱10에 선정된 '모창의 신'들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전현무는 "'히든싱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면서 스타킹이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같지만 진실게임이기도 하다.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으로 '하이브리드 예능'"이라고 인기 비결을 밝혔다.

조승욱 PD는 "프로그램의 간판인 전현무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다. 조좋경 원장과 출연자들 모두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다. 고생 많았고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시즌을 마무리하는 인사를 전했다.

통합 왕중왕전에서는 시즌 1의 안웅기(이문세)·김정우(윤민수)·우연수(이수영), 시즌 2의 김진호(휘성)·조현민(임창정)·임성현(조성모), 시즌3의 김재현(박현빈)·임재용(이재훈)·김영관(이승환)·박민규(왕희) 등 10명이 무대에 오른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경연 자리가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다. 안웅기는 "녹화 무대가 생방송과 똑같은 시스템 안에서 진행됐다. 생방송이든 녹화 방송이든 큰 차이는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방송 출연 후 참가자들의 삶도 달라졌다. 안웅기는 "연예인 된지 1년 됐다. 특히 외모 면에서 참가자들 중 내가 가장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응답하라 1994'에 나온 이문세의 '밤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방송은 내가 더빙한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현재 박경림과 MBC 라디오 '2시의 데이트'의 '진실의 디제이'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우연수는 싱어송라이터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현재 정규 1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호도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가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임성현은 그룹 '더 히든'의 멤버로 가수로 데뷔했고 임재용은 가수 이재훈과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수영강사 김재현은 "참가자 중 유일한 트로트 가수다. 방송 후 아주머니들이 많이 좋아해 주신다"며 "음악 행사보다 타 수영장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 수영강사로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한편 '히든싱어' 시즌4를 기대해도 좋으냐는 질문에 조승욱 PD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준비가 되면 돌아올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혜림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읽고보는 TV

MBC 환경 다큐멘터리 '눈물' 이어 '반란'

'기후의 반란' 8일 방송… 정우성 내레이션 도전

정우성

MBC 창사 53주년 특집 다큐 '기후의 반란'

/MBC 제공

"기후 변화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지구의 눈물' 시리즈로 명품 다큐멘터리를 선사한 MBC가 창사 53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기후의 반란'으로 돌아왔다.

4일 상암 MBC 신사옥에서 열린 '기후의 반란' 기자간담회에서 박상준 PD는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를 겪고 있지만 불편한 수준에서 그친다"며 "기후 변화로 전세계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이어 "취재 결과 우리만 못 느끼고 있었다"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이 시점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MBC는 그 동안 '지구의 눈물' 시리즈로 남극, 북극, 아마존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를 이야기해 왔다. '기후의 반란'에서 초점을 둔 것은 인간이다.

김진만 CP는 "'지구의 눈물' 시리즈는 부족민, 북극곰, 황금펭귄 같은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아이콘에 집중했다"며 "'기후의 반란'은 보다 진지하게 다큐멘터리의 본질에 충실했다. 담고 있는 장면들이 참혹하다. 그러나 다큐멘터리의 역할은 현실을 인지시키고 대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제작진은 1년 동안 총 8개국의 기후 변화 현장을 경험했다.

김종우 PD는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 기후와 관련된 분야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가 공짜라고 생각하는 물도 어느 순간 희소해지고 가격이 오를 때가 온다. 기후 변화로 인해 사회 경제 구조와 복지, 일자리가 바뀌더라. 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기후 변화 불감증'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배우 정우성은 '기후의 반란'을 통해 데뷔 후 처음 내레이션에 도전한다.

박상준 PD는 "정우성의 진지한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 예상 외로 순탄하게 섭외가 됐다"며 "정우성은 현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홍보대사다. 평소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인류의 고통을 간접 경험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기후의 반란'은 '침수', '파산', '난민'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오는 8일부터 3주 동안 매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될 예정이다.

/전효진기자 [illegible]

2014 MAMA' 1부 마지막을 장식한 가수 아이유와 고 신해철 추모 무대. (윗사진) 존 레전드, 태양, 서태지 (왼쪽부터) /CJ E&M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2014 MAMA' 홍콩을 달궜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이하 '2014 MAMA')가 6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홍콩 아시아 월드 엑스포 아레나(AWE)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내 최정상의 가수들은 물론 세계적인 팝스타 존 레전드도 함께 했다. 또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는 한류 스타들이 시상자로 나서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날 공연 현장은 1만여 명의 관객으로 성황을 이뤘다. 또한 엠넷·유튜브·아후 재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 세계 시청자에게 전달됐다.

/홍콩=김지민기자 anu.kim@metroseoul.co.kr

◆ 선후배 함께 즐긴 '2014 MAMA'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케이팝(K-POP)을 선도하고 있는 2000년대 아티스트들과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였던 1990년대 아티스트들이 하나의 무대를 만든 점이다. 가수 아이유는 이날 두 명의 선배 가수와 호흡을 맞췄다. 1부 마지막에 등장한 아이유는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故) 신해철의 노래 '날아라 병아리'로 고인을 애도했다. 이어 3부 오프닝 무대에서는 서태지와 함께 '소격동' 무대를 꾸며 눈길을 끌었다.

서태지는 아이유에 이어 래퍼 바스코, 블락비의 지코와 함께 자신의 히트곡 '컴백홈'을 재해석해 불렀다. 갱스터랩 장르의 '컴백홈'은 이날 공연에서 록 사운드가 가미된 색다른 느낌으로 관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승철은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윤은혜와 '그날에'를 불렀다.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곡이자 지난달 9일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사건으로 독도 지킴이 송으로도 유명해진 노래다.

◆ 엑소·태양 다관왕… 송민호는 최다 퍼포먼스

이날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아티스트는 엑소였다. 엑소는 레드카펫 행사에서 '베스트 아시안 스타일', 본식에서 '남자그룹상' '아시안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인 아시아' '올해의 앨범' 등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 엑소는 2012년 시상식에서는 신인상을, 2014년 시상식에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한 바 있다. 3년 연속 수상에 성공한 엑소는 "수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빅뱅의 태양은 솔로 앨범 '라이즈'의 타이틀곡 '눈, 코, 입'으로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남자 가수상' '올해의 노래' 등 수상했다. 태양은 최근 '굿 보이'로 함께 활동 중인 지드래곤과 함께 시상식 마지막 무대를 장식했다.

그룹 위너의 송민호는 이날 시상식에서 최다 퍼포먼스로 다관왕 못지않은 주목을 받았다. 신인상을 수상한 위너로 '공허해'의 무대를 선보인 그는 에픽하이의 '본 헤이터'와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무대에도 등장해 1부 행사에서만 3번 공연하는 기록을 세웠다.

◆ 현지인은 모르는 행사?

'MAMA'는 올해로 6번째를 맞이했다. 지난 1999년 '엠넷 영상음악대상'으로 시작해 'MKMF(엠넷 KM 뮤직 페스티벌)'로 한중일 동시 생방송을 진행하며 글로벌 시상식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2009년에는 아시아 대표 음악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명칭을 'MAMA'로 바꿨다. 이후 서울·마카오·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여러 도시에서 꾸준히 개최 중이다. 특히 홍콩은 올해로 3회 연속 개최지로 선정됐다.

공연장 내부는 케이팝 팬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으나 바깥 사정은 조금 달랐다. 지난 2일 오후 침사추이에서 만난 홍콩 시민 앤서니 임은 "'MAMA'라는 시상식이 홍콩에서 3년째 열리는 지도 몰랐다"며 "일부 케이팝 팬들만 알고 있는 행사같다"고 말했다. 앤서니 임의 말도 "케이팝 가수는 알고 있지만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고 밝혔다.

'2014 MAMA'는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팝에 친숙하지 않은 홍콩 시민에게는 다소 낯선 축제로 여겨졌다. 케이팝을 넘어서 '케이컬처(K-Culture)' 알리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MAMA'가 자칫 '그들만의 축제'로 남은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았다.

◆ 2% 부족한 케이팝 시상식

한국 대중가요 시상식에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점 중 하나는 케이팝 스타들이 해외 아티스트의 곡을 무대 위에 올린다는 것이다. 'MAMA'도 마찬가지였다. 1부에서 에일리는 걸그룹 걸스데이와 함께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을 불렀다. 시원한 가창력이 돋보였지만 굳이 팝송을 선택해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무대였다.

해외 아티스트의 노래는 또 다시 울려 퍼졌다. 방탄소년단과 블락비는 각각 '댁인저'와 'H.E.R'로 폭발적인 끼를 발산하며 힙합 아이돌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하지만 두 팀은 마지막 컬래버레이션 무대를 위한 노래로는 미국의 팝 그룹 블랙아이드피스의 '렛츠 겟 잇 스타티드'를 선택했다. 개성과 실력이 뛰어난 팀임에도 해외 아티스트의 곡을 불렀다는 사실이 아쉬웠다.

골프 '태극낭자' 일본과 국가대항전

박인비·김효주·유소연·백규정 등 총출동…6일 티오프

주말의 핫스팟

한국을 대표하는 여자 프로골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올 시즌 세계 무대를 화려하게 빛낸 '태극낭자'들이 일본과의 국가대항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6일부터 이틀 동안 일본 미요시컨트리클럽(파72·6495)에서 펼쳐질 '한일여자프로골프 국가대항전 2014'(총상금 6150만 엔)에서 한국은 역대 최강의 전력으로 일본을 압도할 전망이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한일국가대항전에서 한국은 6승 2무 3패의 전적으로 일본에 앞서고 있다.

13명의 대표선수들 중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이는 세계랭킹 1위 박인비(26·KB금융그룹)다. 박인비를 필두로 7위 유소연(24·하나금융그룹), 9위 김효주(19·롯데) 등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가 4명이나 있다.

박인비는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두며 정상의 컨디션을 뽐냈다. 유소연은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 여자오픈에서 우승을 거뒀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다승·평균타수 다승 등 4관왕에 올라 저력을 과시했다. L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박인비·김효주·유소연·백규정 (왼쪽부터)

KLPGA 신인왕이자 LPGA 하나외환 챔피언십 우승자 백규정(19·CJ오쇼핑)과 LPGA 투어 2승을 올린 이미림(24·우리투자증권)도 가세한다. '일본 킬러' 들도 합류한다. 한국팀 주장을 맡은 안선주(27·요넥스)는 일본 대표팀이 가장 껄끄러워할 상대다. 올 시즌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상금 1위와 평균 타수 1위에 오르며 일본 무대를 평정했기 때문이다.

JLPGA 투어에서 상금 3위에 오른 이보미(26)와 4위인 신지애(26)도 출전을 알렸다. 안선주·이보미·신지애 3인방은 올해 JLPGA 투어 37개 대회 중 15승을 합작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최나연(27·SK텔레콤)과 최운정(24·볼빅)을 포함해 올 시즌 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고 상금 3위에 오른 이정민(22·비씨카드)과 3승을 거둔 상금 4위 전인지(20·하이트진로), 2승을 올린 상금 7위 이민영(22) 등 KLPGA 투어 스타들도 출동한다.

일본 대표팀 중에서는 37세의 베테랑 오야마 시호의 세계랭킹 순위(43위)가 가장 높다. 오야마 시호는 JLPGA투어 통산 17승을 기록했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속 한일국가대항전에 출전했다. 이 밖에도 올 시즌 JLPGA 투어 3승을 거두며 일본 선수 중 가장 높은 상금을 확보한 나리타 미스즈를 비롯해 일본과 미국 투어에서 활동 중인 정예 선수들이 대표로 나선다.

1라운드는 2인1조의 총 6개 조가 출전하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른다. 2라운드는 12명이 각각 맞붙는 싱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열린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손흥민 '스타군단' 뮌헨과 대결

골 감각 상승세 활약 기대

주말의 스포츠월드

손흥민(사진)이 소속돼 있는 레버쿠젠이 '스타군단' 바이에른 뮌헨과 맞대결한다.

레버쿠젠은 7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2014~2015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원정경기를 펼친다.

뮌헨은 올 시즌 10승 3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호다. 아리언 로번·프랑크 리베리·토마스 뮐러·마리오 괴체·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 등 막강한 공격진을 자랑한다. 세계 최고의 골키퍼이자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발롱도르 최종 3인 후보에 오른 마누엘 노이어도 있다.

손흥민은 카림 벨라라비·슈테판 키슬링과 함께 스타군단에 일격을 가할 계획이다.

올 시즌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서 5골을 터뜨려 리그 공동 10위를 달리고 있다. 팀 내에서 벨라라비(7골) 다음이며 뮌헨의 주포 괴체(7골), 레반도프스키·뮐러·로번(이상 6골) 등을 쫓고 있다. 고속 드리블과 감슛을 장기로 삼아 업그레이드된 골 감각을 갖고 있다.

분데스리가 3위인 레버쿠젠에서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는 주포로 성장했다. 독일 언론도 기대주를 뜻했던 손세이셔널(손흥민+센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을 지나 '손날두(손흥민+호날두)'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다.

지난달 23일 하노버와의 원정경기에서 1골, 30일 쾰른과의 홈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는 등 공격포인트도 연이어 올리고 있다. 올 시즌 전체 경기에서 11골을 터뜨리며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만큼 뮌헨전에서의 활약에도 관심을 모은다.

한편 한국 축구대표팀의 미드필더 기성용(스완지시티)은 7일 영국 런던의 업턴파크에서 열리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15라운드 원정경기에 나선다. /정병호기자 [illegible]

프로농구 전적 4일

SK	17	24	24	11	76
전자랜드	18	15	16	21	70
동부	12	18	24	14	68
LG	18	21	12	15	66
우리은행	20	15	20	12	67
하나외환	10	12	24	14	58

프로배구 전적 4일

GS칼텍스	3	2	KGC인삼공사
우리카드	2	3	삼성화재

K리그 마지막 한자리 '승격이냐 잔류냐'

'상승세' 광주 vs '벼랑 끝' 경남… 6일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주말의 핫스팟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에 남은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광주FC와 경남FC가 혈전을 준비한다.

광주와 경남은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창원축구센터에서 2014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른다. 올해 K리그에서는 챌린지(2부) 우승팀인 대전 시티즌이 1부에 승격하고, 클래식 최하위에 그친 상주 상무가 2부로 강등되면서 내년 시즌에 자리를 바꾸게 됐다.

챌린지 2~4위 팀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거쳐 클래식 11위 팀인 경남FC와 승격 혹은 강등을 두고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의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광주는 FC안양에 골득실차에서 앞서 가까스로 챌린지 4위에 올라 준플레이오프 막차를 탔다.

광주는 챌린지 준플레이오프에서 3위 강원FC를 1-0으로 제압했고 플레이오프에서 안산 경찰청을 3-0으로 완파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지난 3일에는 여세를 몰아 경남과의 승강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1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2012년 K리그 15위로 추락했어 2부 리그로 강등된 이후 두 시즌 동안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번 시즌 절치부심한 광주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광주는 경남과의 2차전에서 비기거나 한 골 차로 져도 되는 상황이다. 반면 정규리그 최종전에서 상주 상무에 1-3으로 패해 11위에 그치며 승강 플레이오프로 내몰린 경남은 1차전에서 1부 리그 팀의 자존심을 구겼다.

경남은 2차전에서 3골 차 이상 대승을 거두거나 2-0으로 이겨야 클래식에 잔류할 수 있다. 경남이 2-0으로 승리하면 양 팀의 1, 2차전 골 합계가 3-3으로 동률이 되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경남이 앞서게 된다. 상승세인 광주FC의 승격일지 벼랑 끝 경남FC의 극적 반전일지는 6일 마지막 경기에서 판가름 난다. /김학철기자

광주FC 경남FC

한 숫자가 출현하였을 때 함께 동반하여 출현하는 숫자를 상생수라고 하며 반대로 함께 자주 출현하지 않는 숫자를 상극수라고 합니다

262회차 이후의 로또 정보 분석 데이터를 참고하여 금번 회차를 분석하면 상극수의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상생이 좋은 주차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10회 이상 동반 출현한 숫자들이 많았으며 13과 14, 13과 33 및 26과 43이 상생 관계에 해당합니다
26과 43은 12회 나머지는 11회 동안 동반 출현한 전적이 있습니다.

(중략)

지난주에 출현했던 숫자가 이번주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견인상생관계라고 합니다 서로 견인상생관계이며 자주 출현한 숫자를 견인상생수라고 하며 이와 반대로 자주 출현하지 않은 숫자를 견인상극수라고 합니다
견인상생관계는 로또 분석 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금주는 지난주와는 달리 견인상생수의 영향이 유독 강했던 한주였습니다

(중략)

그럼 금주의 선택수와 제외수를 추려내보겠습니다
금주의 제외수는 다른 어떠한 숫자보다도 7이 유력해보입니다
7이라는 숫자의 출현주기 특성상 금주를 기준으로 출현한지 2주차에 해당하는 7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2주차에 출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견인수 통계 및 상생수 패턴을 참고하였을 때도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므로 7이라는 숫자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금주에 이러한 패턴을 벗어난 새로운 패턴이 출몰할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10% 이하로 보입니다

(중략)

회차	A (1~9)	B (10~18)	C (19~27)	D (28~36)	E (37~45)	회배
626		13 14	26	33	40 43	0
625	3 6 7		20 21		39	0
624	6 7		19 25 27	35		3
623	7	12		33	39 41 45	4
622	9	15 16	25	28 34		4
621	1 2 6	16	19		42	4
620	2	16 17		33	38 40	4
619	6 8	12		30 29	38	4
618	9	11	25	29	38 43	40
617	4 9	11 13	24 27			0
616	9	13 16	23		40 45	0
615		10 12 18	19 23 27			0
614	9		21 29		38 40 44	0
613	7 8	12 15			3 45	0
612	8 9	15	19 26	33		0
611	2		23 27	33 36	37	4
610		16 18	20 23	28 38		0
609	4 9		23	28	39 40	0

상기 표는 로또 번호 45개를 각각 9개씩 5개의 존으로 구분하여 최근 18주가 출현한 번호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존은 지속적으로 출현하다 지난주에 자그마치 13주만에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다른 존들과는 달리 A존이 상당히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출현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와는 달리 D존과 E존은 상대적으로 자주 출현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략)

44에 관하여..

금주는 44라는 숫자를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4는 금주를 기준으로 장기미출수에 해당하는 숫자로써 마지막 출현한 회차로부터 출현한지 13주째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장기미출수란 마지막 출현한 회차로부터 10주 이상 출현하지 않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연속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이상
5	6	5	1	4	0	4	1	5	13

다른 여러 숫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44의 출현주기 상 전반적인 출현 횟수들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는 그만큼 44가 262회 이후에 자주 출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주차는 4주차와 6주차입니다
44라는 숫자는 출현한지 4주차가 되는 회차에 단 한번밖에 출현한 적이 없으며 6주차가 되는 회차에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44가 4주차나 6주차에 쉬었을 경우 가급적 44를 제외하고 번호를 조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 44라는 숫자가 9주차에 자그마치 5번이나 출현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로또 번호 45개의 숫자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출현주기가 7주를 경과하면 출현 횟수가 급격히 낮아지는 로또의 특성상 이러한 점은 상당히 독특한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주차에 5번이나 출현한 숫자는 지금까지 41과 44 단 두 숫자 밖에 없습니다

(중략)

"결혼식 종합예술로 꾸며야죠"

사람이야기

■ 신상수 스칼라티움 대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은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56.8%로 2010년 64.7%, 2012년 62.7%로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결혼을 원하는 미혼 여성은 38.7%에 그쳤다. 또 연예인이나 유명 인사의 결혼식이 연일 화제가 되면서 점차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런 사회 현상을 반영한 듯 결혼 비용이나 의식 절차 등을 포함한 문화에 대해 13세 이상 인구의 4명 중 3명(75.9%)꼴로 '과도한 편'이라고 답했다. 결혼은 살면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지만 플래너가 정해준 대로 따라가는 등 예식 문화가 획일화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18년째 웨딩 사업에 종사해온 신상수 스칼라티움 대표는 결혼을 '하나의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했다. 웨딩 홀-조명-의상 하객 등이 어우러져 만들어지는 하나의 공연과도 같다는 것이다. 예식 문화에 대한 그만의 철학에 대해 들어봤다.

◆ '사업가'가 아닌 '문화 창조가'

신 대표는 대학 시절 공연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공연처럼 재미있는 것에 대해 고민하다가 웨딩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식은 매일이 공연의 연속이다. 웨딩 홀-드레스-조명 등 공연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화된 결혼 문화를 피하고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가치와 정신을 예식에 담아낼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인생의 과정을 계단에 표현했을 때 태어나는 순간 첫 계단을 밟아 올라가다가 중간쯤이 바로 결혼이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다. 스칼라티움도 계단이 가진 상징성에 주목해 만들어졌다."

그는 스칼라티움을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소개했다. 공연에 애착을 갖고 있었던 만큼 예식장 곳곳에 그림을 배치하고 갤러리를 따로 만들어 놓는 등 기존 천편일률적인 예식장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예약이 없는 날은 일반인들을 초대해 토크쇼를 열고, 신부맞이 파티를 열어 주는 등 소통의 공간으로 웨딩 홀을 사용하고 있다.

획일 벗어나 문화를 입히는 공연장으로…
지역사회 위해 열린 소통의 장으로 활용

"상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 즉 '문화가 꽃피워지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평일에는 대부분 예식이 없는데 이 시간을 지역 주민들에게 할애하고 있다. '언제나 좋은 이웃으로 함께 한다'는 슬로건에 따라 지역 주민들과 공간을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매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2회 토크쇼를 진행하고, 신부들을 초대해 파티를 열어주고 있는데 벌써 3년 째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갤러리도 따로 만들었다. 스타벅스를 예로 들자면 커피에 문화를 입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문화 예술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다. 스칼라티움 역시 결혼에 문화를 입혀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인연이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 '명품 보다 더 빛나는 가치를 추구'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으로 울랄라세션의 리더 고(故) 임윤택의 결혼식을 꼽았다.

"스칼라티움에서의 결혼은 나눔이고 축제다.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임윤택의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돋보였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병을 전혀 내색하지 않았고 결혼식 역시 예능처럼 즐거웠다."

신 대표는 호텔 예식 못지않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운영하고 있다. 그는 돈이 없어 서러운 결혼은 없게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한다.

"호텔 웨딩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 우리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대신 가치가 담긴 명품 웨딩을 구현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명품 보다 더 빛나는 결혼에 대한 가치를 심어주고 아름답게 포장해 결혼이라는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는 현재 리조트 사업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험 상품 개발을 준비 중이다.

"야외 예식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리조트 사업에 웨딩을 접목한 '무창포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다. 한류 열풍이 대단한데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중국인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에게 홀과 드레스 등을 빌려주고 한국의 결혼 풍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했다. 상품 론칭 시기를 내년으로 잡고 여행사와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스칼라티움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해 가면서 갖고 있는 가치를 전파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결혼'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종 꿈이자 열망이다."

/김수정기자 kjj2215@metroseoul.co.kr

아트스페이스, 참여 작가 모집

아트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는 스칼라티움이 '2015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와 '뉴욕 레지던시'에 참여할 작가를 모집한다.

아트스페이스는 강남역 중심지에 위치한 파티-문화-전시 공연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이다. 문화예술경영의 일환으로 이곳에 마련된 갤러리에서는 무료로 전시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신진 작가를 후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서식예술 한마당에서 모집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남점과 상암점에서 각각 20명씩 선발하고 이들에게는 '스칼라티움 아트스페이스 기획초대전' 전시 참여와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이 중 참가자 2명에게는 '뉴욕 ARJ NY 레지던시'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스칼라티움은 해마다 다양한 메세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2년 '원코리아 페스티벌 나눔 콘서트'를 비롯해 '세계 환경기후 난민돕기 후원의 밤'(2013년), '무계획 환우가족 자선행사'(2013년) 등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는 '세월호 참사 추모곡 합창' 행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후 '내 검은 백합들아'라는 노래가 희생자 추모곡으로 널리 불려지며 서울 강남구 스칼라티움에서 성악가 146명과 함께 노래를 합창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김수정기자

'복합문화 공간' 스칼라티움

스칼라티움은 진화된 결혼 문화 창조를 가치로 브랜드화한 새로운 형태의 결혼 문화 공간이다.

우리나라 대표 예식장이었던 목화예식장에 문화를 입혀 스칼라티움으로 재탄생했다. 결혼은 물론 공연·전시·파티 등 복합문화공간을 표방하는 스칼라티움은 에드워드 멘델슨의 저서 '인생은 험곡 계단'에서 착안해 만들어졌다.

라틴어로 계단을 뜻하는 스칼라(Scala)와 공간을 의미하는 스파티움(Spatium)을 조합한 것이다. 특히 계단은 '소통과 이동의 공간' '대중과 함께 나누고 기부하는 교류의 공간' '환상과 신비로움' 가득한 천상의 세계를 향한 성스러움 결혼식' 등으로 해석했다.

현재 강남점·상암월드컵점·수원영통점·안양평촌점·구리남양주점 등 5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파티-웨딩-전시를 모두 열 수 있는 아트스페이스를 운영해 새로운 웨딩 문화를 개척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김수정기자

강남점 오일리아홀 /스칼라티움 제공

크리스마스 대목… 케이크 판촉전

캐릭터·프리미엄 등 특성 살린 제품 출시 봇물

식품 업계 최고 대목인 크리스마스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크리스마스에서 빠질 수 없는 케이크 제품 판매가 12월에 집중되면서 각 업체는 앞다퉈 자사만의 특징을 담은 제품이나 색다른 마케팅을 선보이며 고객 잡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배스킨라빈스는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조각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귀여운 캐릭터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 20종의 신제품을 한번에 선보였다. '오로라 빌리지'를 비롯해 '윈터 빌리지', '스노우 볼 러섬', '숲 속의 크리스마스', '큐브 투게더', '스위트 홈' 등 이름만 들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는 제품들이다. 이 업체는 12월 이달의 케이크(COM)인 '윈터빌리지' 구매 때 파인트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펼친다.

뚜레쥬르는 지난 11월 말부터 캐럴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 여행'이라는 콘셉트의 케이크 제품 판매에 나서고 있다. 음표와 악기 등 캐럴을 상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케이크 장식으로 활용했다. 통신사 제휴 제휴를 통해 T멤버십 고객은 20% 할인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KT Olleh Club과 LG U+ 멤버십 고객은 1000원 당 160원이 할인된다.

유러피안 라이프 스타일 카페 아티제도 크리스마스 스페셜 케이크 7종을 출시하고 이에 맞춰 3만원 이상 구매자에게 100% 당첨 스크래치 카드를 증정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영원한 사랑'을 주제로 기존 제품에 프리미엄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더해 뉴욕 스타일로 재해석한 상품을 내놨다. 시즌 케이크 구매자에게 핸드드립 커피를 1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던킨도너츠는 도넛 전문 업체로 기간 한정으로 크리스마스 도넛 8종과 케이크 6종 등 신제품 14종을 선보였다. 관련 제품 구매자에게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트롤(요정)을 캐릭터화한 '무민쿠션'을 선착순으로 할인한다.

이탈리아 커피전문점 파스쿠찌도 크리스마스 신제품으로 '초코 원더랜드', '메리 베리랜드'와 '파네토네' 등 총 3종을 내놨다. 구매자에게는 모든 종류의 커피(레귤러사이즈)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스페셜 커피 교환권'을 준다.

MPK그룹이 운영하는 커피&머핀 전문점 마노핀은 '눈 내리는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산타·루돌프·눈사람·눈꽃 등의 캐릭터를 활용한 머핀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앙증맞게 표현한 10종의 크리스마스 시즌 머핀을 선보였다.

/장병철기자 jame@metroseoul.co.kr

술 맛 당기게 하는 안주 요리

여름엔 막주라면 가을, 겨울은 단연 소주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다. 깊어가는 겨울 밤, 소주 한잔과 함께 즐기기 좋은 매콤하고 칼칼한 안주요리 3가지를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알탕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140㎉ / 조리시간: 30분

[재료] 명란 8개, 무 1/4개, 콩나물 70g, 대파 1뿌리, 홍고추 1개, 쑥갓 2줄기, 물 4컵

[양념] 간장·고춧가루 각 2큰술, 다진파·다진마늘·청주 각 1큰술, 소금·후춧가루 각 약간

1. 명란은 찬물에 씻어 헹구고 체에 밭쳐 물기를 뺀다.
2. 무는 납작 썰고 콩나물은 뿌리를 다듬어 씻고, 대파·홍고추는 어슷 썰어 쑥갓과 미나리는 씻어 5㎝ 길이로 썬다.
3. 간장에 고춧가루·다진 마늘·생강즙·청주·소금·후춧가루를 넣고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4. 뚝배기에 무를 넣고 볶다가 익으면 물을 붓고 양념장을 풀어 넣는다.
5. 국물에 명란과 콩나물을 넣고 끓이다가 미나리·쑥갓·고추·대파를 넣고 조금 더 끓여 향을 돋운다.

◆닭발

분량: 2인분 / 열량: 189㎉ / 조리시간: 30분

[재료] 닭발 200g

[양념] 소금·소주·청양고추 각 적당량, 고춧가루 3큰술, 다진양파 1과 1/2큰술, 다진고추 1큰술, 설탕·소금 각 약간

1. 깨끗이 씻은 닭발을 소금물에 넣어 삶다가 소주를 약간 부어 냄새를 제거한 후 꺼내 식힌다.
2. 고춧가루 3큰술, 다진 양파 1과 1/2큰술, 다진 고추 1큰술, 소금·설탕으로 양념을 만든다.
3. 닭발에 양념장을 버무리고 석쇠를 이용해 연탄불에서 7~8분 정도 굽는다.
4. 앞 뒤로 잘 익힌 후 접시에 올리고 청양고추를 뿌려 매운 맛을 가미한다.

◆골뱅이무침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220㎉ / 조리시간: 30분

[재료] 골뱅이통조림 200g, 오이·양파 각 50g, 대파·당근 각 30g, 셀러리 1/3대, 소면 100g

[양념] 고추장·고춧가루·식초 각 3큰술, 설탕 1과1/2큰술, 깨소금·진간장·참기름 각 1큰술, 다진마늘 2큰술

1. 골뱅이는 물기를 빼고 절반크기로 썬다.
2. 오이는 두께 0.5㎝ 통으로 썰고, 당근은 두께 0.2㎝ 길이 4㎝로, 양파는 두께 0.5㎝로 채썬다.
3. 셀러리는 두께 0.2㎝ 통으로 썬다.
4. 양념 재료를 섞어둔다.
5. 소면을 끓는 물에 삶아 낸 후 찬물에 식혀서 골뱅이·오이·파·당근·양파와 함께 양념에 버무린다.
6. 접시에 셀러리를 둘러 담고 ①을 놓는다.

메트로신문·브레빌, '무료 쿠킹 클래스' 진행

호주 가전 브랜드 브레빌(Breville)이 12월 20일 오전 11시 알라카르테 강남점에서 메트로신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홈파티 쿠킹클래스'를 무료로 진행한다.

응모 방법은 브레빌 블로그(http://alacarte.co.kr) 내 '홈파티 쿠킹클래스' 이벤트 공지에서 응모 이유와 이름, 연락처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응모 독자 중 총 10명을 '홈파티 쿠킹클래스'에 초대할 예정이다. 응모 기한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다. 당첨자는 8일에 발표한다.

브레빌은 이번 쿠킹클래스에서 재료의 수분과 영양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양면 압착방식 그릴인 '프로페셔널 그릴(800GR)'을 활용한 목살 찹스테이크와 간편 볶음밥을 선보인다. 또 핑거푸드용 딥 소스 레시피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딥 소스는 브레빌의 2015년 출시 예정 블렌더인 'BOSS'를 활용해 재료를 빠르게 분쇄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개성 살린 크리스마스를…

소품·핸드메이드 아이템 인기

크리스마스와 송년회 등 다양한 약속과 행사로 일정이 가득한 12월이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최근 1인 가구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각자의 개성은 살리면서도 뜻깊고 추억이 될 만한 연말 분위기를 낼 만한 소품과 핸드메이드 제품들이 눈길을 끈다.

초콜릿 브랜드인 페레로 로쉐가 선보인 한정판 '크리스마스트리 T'은 선물뿐만 아니라 장식 소품으로 활용도 가능한 제품이다. 이 아이템은 페레로 로쉐 12개가 황금빛 크리스마스트리 패키지 안에 담겨 있어 멋과 맛, 경제성까지 두루 갖췄다.

크리스마스트리의 형상을 한 귀여운 캔들과 산타 모양의 캔들도 나만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소품이다.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는데 제격이다. 텐스크 미니마켓에서 구입 가능하며 가격은 1만7000원~2만원 정도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트리·종 그리고 타이포 일러스트 등의 엽서카드를 사용해 집안 곳곳에 세워두거나 크리스마스트리의 오너먼트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가격은 1000~3000원대로 저렴하다.

친구 혹은 가족과 달콤한 음료를 마실 때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면서 즐거움을 배로 느끼고 싶다면 페이퍼 스트로가 제격이다. 데일리 라이크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가격은 1000원 정도.

천편일률적인 크리스마스카드나 연하장이 식상하다면 간편하게 정성이 담긴 핸드메이드 카드 등을 제작해 보는 것도 색다른 크리스마스와 송년을 보내는 방법이 된다.

스탬프마마에서는 다양한 소품과 기본 재료 등을 활용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카드와 달력 등을 만들 수 있다. 트리 등 장식용 제품도 동봉된 제품들은 단지 오려 붙이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장경림기자

숙면 침구 고르는 법

겨울엔 보온·흡습·드레이프성 중요

겨울철에는 밤이 길어지면서 일조량이 줄어나 수면시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하루 중 수면으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면 용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겨울철 침구를 선택할 때 보온성·흡습성·드레이프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자는 동안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성을 지녀야 한다. 평소보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자기 때문에 수면 중 흘리는 땀을 흡수하고도 건조해 쾌적한 수면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드레이프성이 있어 덮었을 때 몸에서 들뜨지 않고 밀착돼 차가운 외부 공기를 막아줘야 한다.

추운 날씨에 몸을 움츠리고 다니다 보면 근육이 긴장하기 쉽다. 운동량이 줄어들고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어깨나 허리 등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통증이 심할 경우 수면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같은 겨울철에는 이불 대신 토퍼를 깔아두면 도움이 된다. 토퍼는 침대를 사용하는 대신 바닥에 깔아두고 사용하거나 침대 위 프레임 혹은 매트리스 위에 올려두고 사용하는 수면 용품이다. 체압을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허리와 어깨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

이브자리 보드 양모 토퍼요솜(단면 양모)는 단면이 천연소재인 양모솜으로 돼 있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어 편안한 수면환경을 제공한다. 세탁 시에는 오염된 부분만 세탁할 것을 권장한다.

까사미아는 매트리스 위에 올려 사용할 수도 있고 놀이용 매트와 요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토퍼 3종을 선보였다.

구스는 보온성과 흡습성이 뛰어나 베개 소재로 인기가 높다. 이에 최근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구스 베개가 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프라움의 마이필로우는 90%를 구스다운(거위 솜털)으로 채워 넣어 나머지 빈 공간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파이프나 구스 페더(거위 깃털) 등 다른 충전재를 넣을 수 있다.

/유수정기자 kss@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

연말 맞아 기부 활동 활발
기업들 '착한 행보' 이어가

연말을 맞아 꾸준히 이어지는 유통업계의 '착한 행보'가 사회를 훈훈하게 달구고 있다. 소외된 이웃에게 물품을 지원하거나 판매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기부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고객의 동참을 통해 조용하게 이뤄지는 기부 문화가 눈길을 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보온병 브랜드 써모스 코리아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보온병 400개, 보온도시락 102개 등 총 502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소비자가 기준 약 3000만원 상당의 이 물품은 성내종합사회복지관,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등 기관을 통해 어린이나 취약계층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써모스가 국내에 진출해 3년간 지속 성장한 데 감사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친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올해는 봉사활동, 연탄 배달 등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고객 참여로 이뤄지는 새로운 기부 문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제일모직은 9월 중순 종로구 삼청동에 CSR 매장인 '하티스트 하우스'를 열었다. 신진 디자이너들의 업사이클링 제품과 제일모직의 기부상품 등 하티스트 매장에서 판매되는 의류·패션 아이템의 수익금은 모두 사회공헌에 사용된다.

더 플라자 호텔은 내년 1월 18일까지 '퍼플 인 유어 하트' 패키지를 판매한다.

'퍼플 인 유어 하트'는 더 플라자의 연말 자선 활동으로 호텔 측은 기부금 마련을 위해 테디베어 유지엄과 플라자 테디베어 제일리 를 만들었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딜럭스룸 1박과 함께 테디베어 인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으로 기부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인형 판매 수익금은 전액 한국컴패션에 전달되며 기부금은 아시아 지역 어린이에게 깨끗한 식수를 지원하는 '워터 프로젝트'의 후원금으로 쓰인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왼쪽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 써모스코리아 이마구치 히로시 대표, 써모스 전속모델 박형식. /써모스 제공

이대목동병원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권영진(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대목동병원 육규진확극장이 최근 서울 코엑스에 열린 제19회 소비자의 날 기념 행사에서 병원을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어날 소비자 권익 보호 공로를 인정받아 '위탁정보 제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대목동병원 제공

아이와 지구를 함께 생각

버즈비·닥터 브로너스 등 자연 성분 주목

소중한 자녀를 위해서는 작은 제품 하나도 깐깐하게 고르게 된다. 최근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에게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자연 성분 제품,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는 '착한 아이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버즈비는 꿀벌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꿀벌 건강 증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환경 브랜드다.

버즈비는 집에서 만든 정성스러운 식사처럼 자연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버즈비베이비 비 샴푸 앤 워시 카밍은 라벤더와 바닐라향에 블렌딩된 은은한 아로마 향이 매력적인 워시 제품으로 아기가 편안하게 잠드는 데 도움을 준다.

156년 전통의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 브로너스는 미생물로 분해되는 친환경 패키지로 제품을 제작할 뿐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합성 광물, 동물 성분 등을 일체 배제하고 미국 농무부(USDA)에서 인증을 받은 성분만 사용한다.

닥터 브로너스가 선보인 '베이비 마인드 오가닉 립밤'은 무향의 유기농 립밤으로 아이가 먹어도 안전한 제품이다. 고농축 유기농 오일이 메마른 입술을 촉촉하게 가꿔준다. /박지원기자

아스타리프트, 착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스타리프트는 5일부터 31일까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에코 라이프' 이벤트를 벌인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에코 활동을 통해 크리스마스를 더욱 즐겁고 따뜻하게 보내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

이 기간 아스타리프트의 제품 구매 시 동일한 상품의 리필형 제품을 하나 더 증정한다.

용기는 그대로 사용하고 리필만 교체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플라스틱의 양을 70%나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이벤트 제품은 젤리 아쿠아리스타, 에센스 데스티니, 로션, 에멀전, 크림, 나이트 크림 등 6종이다. /박지원기자

편의점 '와인, 지금이 성수기' 할인전

"겨울 매출 가장 높아"… 치별화 상품도 잇따라

편의점 업계가 성수기를 맞은 와인 프로모션에 돌입했다.

세븐일레븐은 '키르헨카베네', '옐로우테일' 등 베스트 와인 13종을 최대 47%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다.

이와 함께 트라피체심글빈야드 2본세트, 블루넌아이스바인, 모엣&샹동 임페리얼(사진) 등을 출시해 구색을 확대한다. 특히 모엣&샹동 임페리얼의 편의점 판매는 이번이 처음이다.

GS25는 지난달 출시한 '보졸레누보 기획세트'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올해 판매하는 보졸레누보는 전 세계 보졸레누보 생산·판매 1위 조르쥬뒤뵈프 보졸레누보다. GS25만의 차별화된 라벨이 부착된 상품을 판매한다.

CU도 20여 종의 와인을 최대 54% 할인하는 '스페셜 와인데이'를 진행 중이다. 1866년 몬테스알파, 아발론캘리포니아 등 인기 와인 위주로 1만~3만원대 가격으로 구성했다. /유수정기자

스키장 개장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스키장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 스키월드는 오는 13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저녁 슬로프 특설무대에서 '라이딩 콘서트'를 개최한다. 스키월드의 대표적인 공연 이벤트로 올 시즌에는 국카스텐과 휘성, 홍진영 등이 출연하며 콘서트 종료 후에는 음악에 맞춰 불꽃축제가 이어진다. 또 비발디파크 준보드무대에서는 아이돌-개리라 콘서트' 등이 열리며 31일까지는 스키디만 오션월드 무료 입장 이벤트'도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일 개장하는 서브원 곤지암리조트는 6일과 7일 이틀간 시간제 리프트권인 '미타임패스'를 특별 우대요금으로 제공한다. 게다가 6일부터 서울·경기 11개 노선 51개 정유장에서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초보 스키어들 위한 무료 스키강습인 '원포인트 안전 클리닉'과 'V앤 서비스'도 운영된다.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보광 휘닉스파크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되찾기 위해 '제1회 아날로그 뮤직 페스티벌'을 마련했다. 2018 동계 올림픽 성공 기원 이벤트와 인디 밴드 초청 콘서트, 클럽 디제잉 파티 등의 놀거리도 고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휘닉스파크는 저렴한 가격으로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스키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으며 11일까지는 최대 60%까지 할인을 실시한다.

5일 문을 여는 지산포레스트리조트는 개장 당일 리프트 무료, 렌탈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해맞이 명소 어디가 좋을까?

'참 좋은 여행' 숨어 있는 일출 명소 소개

우리나라 곳곳에는 정동진, 호미곶과 같은 '일출 명소'가 많다. 하지만 굳이 북새통인 이런 장소를 찾지 않아도 아예 못지 않게 훌륭한 해맞이 명소를 찾을 수 있다. 참 좋은 여행이 추천하는 숨은 일출 명소를 소개한다.

먼저 왕복 4시간 가량 소요되는 야간산행 후 새하얀 눈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태백산이 있다. 눈 덮인 나무가 우거진 눈꽃터널을 지나 하늘과 가장 가깝다는 천제단에서 일출을 맞이할 수 있으며 바다와는 다른 일출의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육지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위치한 신리 문무왕의 수중릉 '대왕암'도 색다른 일출 장소다. 죽은 뒤 동해에 묻으면 용이 돼 침입하는 왜구를 막겠다는 유언에 따라 만들진 이곳에서는 파도에 부서지는 일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백일기도를 드린 뒤 왕위에 오르자 감사의 뜻으로 이름 붙였다는 전설이 전해지는 남해 금산은 기암괴석이 가득한 산악공원이다. 최정단에 위치해 따뜻하지만 등산객이 소망을 담아 쌓은 돌탑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다.

이와 함께 통영 미륵산에서는 국내 최장(1975m)의 관광용 케이블카를 타고 도착하는 전망대에서 일출을 볼 수 있다. 일출 전후로 유람선을 타고 바다 여행도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이순신 장군이 진을 쳤던 곳이라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이 이에도 ▲동해 추암 촛대바위 ▲거일암과 오동도 ▲간절곶 등도 놓칠 수 없는 일출 명소다.

/황재용기자

가족과 서울서 즐기는 볼거리는…

장난감 전시, 프리마켓 중심의 컨벤션 등 주목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에 고민하는 가족들이 늘고 있다. 매년 자녀들이 관심을 가지는 활동을 즐겼다면 올해에는 부모와 함께 즐기는 이색 전시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는 6일부터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열리는 '브릭코리아 컨벤션 2014'는 레고 브릭으로 만든 창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다.

레고코리아가 후원하고 레고 커뮤니티인 '레고당'을 비롯해 '브릭나라', '브릭스월드', '브릭인사이드'가 주최하는 커뮤니티연합 창작 전시회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엔 가로·세로 길이가 3m가 넘는 초대형 디오라마와 높이 15㎝이 초소형 창작품 등 약 300여 점의 창작품이 선보인다.

행사에선 ▲관람객이 직접 자유롭게 창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자유창작존' ▲레고 케이스 클레이트로 제작된 벽면에 브릭을 조립할 수 있는 '브릭 포토존' 등이 운영된다. 6~14일 까지 열리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다. 단 14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관람은 무료다.

또 서울 대치동 SETEC 제3전시실에서 열리는 '하비페스티벌'은 국내·외 다양한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 소장품이나 창작품 등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프리마켓 중심의 컨벤션 행사다.

행사장엔 ▲개인이 소장한 피규어나 프라모델, 브릭 미니어처 등을 볼 수 있는 '스페셜하비존' ▲디자이너와 아트디렉터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마켓' 등이 진행된다. 완구업체의 제품과 아마추어 취미인의 작품을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비지니스마켓'과 '프리마켓'도 준비돼 있다. 6일과 7일, 양일간 열린다.

교육적인 전시나 유럽 문화를 느낄 수 있어 재미와 교육적 효과 등 1석 2조의 행사도 있다.

전쟁의 교훈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전쟁기념관 어린이박물관'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안에 개관했다. 선사시대부터 6·25 전쟁까지의 우리나라 전쟁의 역사를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이나 디윰 등의 체험과 같은 놀이로 풀어낸다. 성곽 오르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용대상은 4~10세까지다. 관람과 체험 비용은 무료.

서울 성북구 성북천 분수마루에서 6일과 7일 벌어지는 '유러피언 크리스마스 마켓'은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재현한 행사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크리스마스 음식과 캐럴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다. 또 각국의 크리스마스 소품도 구매할 수 있다.

/정영일기자 ★mo@

(왼쪽부터) 브릭코리아컨벤션, 하비페스티벌

요우커, 씀씀이도 크다!

최근 관광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중국인 관광객은 씀씀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관광 전문 여행사 코스모진(대표 정명진)은 코스모진 관광 R&D 연구소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사의 'VIP 프리미엄 관광'을 요청한 중국인 관광객 596명을 대상으로 소비 금액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한 번 방한 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씩을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관광객 중 37%는 5000만원 이상을 사용했다. 세부적으로 관광객 중 39%는 1억원 이상, 17%는 2억원 이상 소비했으며 3억원 이상 지출한 비율도 8%나 됐다.

특히 30대가 최고 많은 소비를 기록했다. 5000만원 이상을 사용하는 관광객 중 30대는 절반이 넘는 56%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사용한 관광객 중에서도 30대가 20%를 기록해 1위를 지지했다.

아울러 쇼핑 때 가장 선호하는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68%가 명품 브랜드를 꼽았으며 23%는 한류 브랜드였다.

/황재용기자

게임회사 직원의 일상 궁금하세요?

다음 인기 웹툰 '게임회사 여직원들' 작가 인터뷰
"사회 편견 대신 적성 좇아 일하다보니 행운이…"

PC 온라인과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다 즐기는 게임들. 정작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요즘 게임 업계 종사자와 취업 준비생 사이에서 화제가 되는 웹툰이 있다. 지난 7월부터 포털 다음 '만화속세상' 연재를 시작한 작품 '게임회사 여직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 웹툰은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이 출시되는 과정, 게임 개발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등을 귀여운 캐릭터로 표현한다. 이 때문에 게임 업계의 애환을 현실적이면서도 재치있게 그렸다는 호평을 받으며 연재 3개월 만에 다음 인기 웹툰으로 떠올랐다.

12월 첫 눈이 소복이 쌓인 3일 서울 광화문에서 '게임회사 여직원들'의 작가 '마시멜'(28·가명 조수연)을 만났다. 그는 본명과 얼굴 공개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에서 게임 웹툰 작가로 변신한 계기는 SNS에 틈틈이 올리던 습작 덕분이었다. 게임 회사 '네오플'에서 RPG 액션 게임 '던전앤파이터'의 효과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던 그는 근무 에피소드를 만화로 그리며 직장 생활의 무료함을 달랬다. 조씨는 "2010년부터 페이스북에 틈틈이 만화를 올렸는데 어느날 출판사로부터 책을 내자는 연락이 왔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주말에 만화 그리는 생활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직장 생활 5년차였던 지난 5월 '게임회사 여직원'이란 자전적 웹툰 에세이가 출판됐고, 이 책을 눈여겨 본 다음 웹툰 담당자가 조씨에게 웹툰 정식 연재 제의를 했다. 평범한 게임 회사 직원에서 굴지의 포털 웹툰 작가로 등단하게 된 것이다. 조씨는 "책을 출판하고 7월에 회사를 그만 뒀다. 모두들 말렸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 사표를 냈는데 퇴사한 지 2개월만에 다음에서 연재 연락이 와 놀라웠다"고 말했다.

◆ 일주일에 하루 쉬지만 행복

웹툰 '게임회사 여직원들'은 연재 초기에는 한주일에 한번씩 연재됐지만 높은 관심 속에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마다 독자들은 만나고 있다. 조씨는 "웹툰 제목에 '여직원'을 강조한 이유는 게임 산업 특성상 여성 직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첫 직장은 남녀 비율이 9대 1, 두번째 직장은 7대3이었지만 여자라고 차별 받는 일은 없었다. 웹툰을 통해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각 직군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매주 두번 웹툰을 올리는 일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고강도 작업이다. 그는 "일주일에 제대로 쉬는 날은 하루밖에 없다. 매일 앉아서 일하기 때문에 체력이 바닥날까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마감이 닥치면 새벽 2~3시까지 작업하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만화 속 캐릭터는 크게 3명이다. 문서로 게임 청사진을 구상하는 기획자, 게임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는 개발자, 게임 캐릭터와 배경 효과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디자이너 등이다. 이 중 디자이너는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 작가 자신을 모델로 했다. 나머지 캐릭터들은 각 직군의 대표적 특성을 조합해 창조했다. 기획자는 늘 문서 파일을 들고 다니고, 개발자는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펑퍼짐한 후드티를 입는 식이다. 웹툰 에피소드는 실상과 가상 이야기를 섞어 구성한다.

다음 인기 웹툰 '게임회사 여직원들'의 마시멜 작가가 웹툰 작업을 하는 모습.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 출신인 그는 틈틈이 SNS에 올린 그림들이 인기를 끌며 정식 웹툰 작가로 활동하게 됐다. 본인 요청에 따라 본명과 취면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진영기자 son@

그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과 출신으로 당시 130명 신입생 중 여학생은 10명에 불과했다. 더욱이 자신이 관심있던 게임 그래픽 전공 수업은 두개밖에 개설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학으로 게임 그래픽을 공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쌓아 갔다.

조씨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그래픽이라 생각했다. 목표가 명확해지니 공부하고 취업하는 과정이 비교적 수월했다"며 "게임 분야 구직자들로부터 취업 노하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적성과 직군 이해를 많이 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 세계는 원화가, 애니메이터, 3D 모델러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된다. 여기서 다시 캐릭터와 배경 담당으로 세분화된다. 이 때문에 게임 기업에 취업을 바라면 직군에 대한 정확한 공부가 필수다.

마침 인터뷰하던 날은 수능 성적표가 발표됐다. 게임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 게임 종사자에게 가족들의 성원은 큰 힘이다. 조씨는 "게임공학과 진학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 덕분에 자부심 갖고 게임을 업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게임 회사 어디에든 동문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게임업계 진출이 활발하다. 대학 선택 때 주위 편견이나 간판 대신 자신의 적성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온라인에서 즐기던 게임 모바일로

리니지·피파3·아제라 등 경계허문 옴니채널 열풍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비주류 취급받던 모바일 게임이 급속히 세를 불리자 위기를 느낀 온라인 게임들이 속속 모바일 게임과의 연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오프라인·온라인·모바일을 통합해 최저가를 제공해 각광받고 있는 유통 업계의 '옴니채널' 열풍이 게임 업계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온라인 게임의 왕가 엔씨소프트는 최근 모바일 공략을 선언했다. 지난달 끝난 지스타2014에서는 PC와 모바일용으로 모두 즐길 수 있는 '리니지 이터널'을 선보여 큰 호평을 받았다. 현재 서비스 중인 온라인PC 게임 '블레이드앤소울'과 '아이온'의 모바일 버전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김택진 대표는 "현재 엔씨소프트는 산소탱크가 터진 아폴로 13호 같은 심정"이라며 "리니지 이터널을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게임을 모바일과 PC에서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넥슨도 '피파 온라인3'와의 연동을 무기로 내세운 '피파 온라인3 M'으로 옴니채널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리그 플레이, 이적 시장, 강화·트레이드 등 주요 기능을 온라인·모바일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게이머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스마일게이트 역시 최근 선보인 온라인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제라'와 모바일 연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C·콘솔(엑스박스)·스마트폰 등 다중 플랫폼을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MS)도 옴니 채널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5억 달러(약 2조6000억 원)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세계적인 히트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인수했기 때문이다. 게이머가 상상하는 것을 블록을 이용해 만드는 방식인 이 게임은 다중 플랫폼 연동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임 업계 한 관계자는 "온라인과 모바일의 연동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다만 연동 시스템 개발의 어려움과 스마트폰 배터리의 한계 등은 극복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in…

◆ 용어설명 옴니채널은 "모든 것, 늘"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뜻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

THE MUSICAL

Final Ticket Open 11.5

2014.12.5 ~ 2015.1.3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FEATURING THE WORLD FAMOUS HITSONGS OF THE GIPSY KINGS | BASED ON AN ORIGINAL STORY BY ISABEL ALLENDE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맨 오른쪽)가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김 美 6자회담 대표 방한…동북아 정세 논의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가 4일 방한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외교부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다. 이날 최근 최룡해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의 러시아 특사 방문 후 달라진 동북아 정세를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미와 권위 모두 갖춘 시상식을…

기자 수첩

장병호 <연예스포츠부 기자>

바야흐로 시상식 시즌이다. 영화계에서는 지난달 21일 제51회 대종상영화제가 열린데 이어 오는 17일에는 제35회 청룡영화상이 기다리고 있다. 가요계에서도 지난 3일 '2014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이하 MAMA)가 막을 내렸다. 방송가도 연말 시상식 준비로 분주하다.

문화·예술 창작물에 순위를 매기고 평가해 최고를 꼽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럼에도 여러 시상식이 화제인 것은 단순한 점수 매기기를 넘어선 축제의 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스타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과연 지금의 시상식을 진정한 축제라고 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생긴다. 매년 재미도 권위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종상영화제는 지난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 몰아주기로 논란에 휘말렸다. 올해는 한국영화감독협회와 영화제 조직위원회 사이의 잡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올해 'MAMA'에서는 글로벌 창조경제를 설파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가 예고 없이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아시아 대표 음악 축제'를 표방하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의아함을 갖기에 충분했다.

아카데미와 골든 글로브, 그래미 등은 미국을 대표하는 시상식이다. 그럼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그만큼의 재미와 권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시상식에서는 후원사 임원이 시상자로 나오는 '황당한' 일도 없다.

올해는 SBS에서 기존의 연기대상·연예대상·가요대전을 합친 'SBS 어워즈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들만의 잔치'는 이제 끝나야 한다. 재미와 권위를 모두 갖춘 진정한 축제로서의 시상식을 만나고 싶다.

뉴스&뉴스

이완구 "8~9일 본회의 열어 계류 법안 처리"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는 8~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계류 법안을 모두 처리하고 12월 임시국회는 20일께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4일 "상임위에서 처리 중인데 200~300여 개 법안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김여정 방남 추진'…통일부 "확인 필요"

●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교류 행사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의 참석이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연연합회 회장은 4일 "북측이 보낸 의향서에 김여정이 (참가자 중에 있고 직책은) 대외사업부 부장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여정의 방남 가능성에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청운회>

"정씨 얼굴 본 적 없다"

김춘식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응천 오늘 소환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의 유출 과정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4일 김춘식 청와대 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이르면 5일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김 행정관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형사1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씨 얼굴도 본 적이 없고 문건에 등장하는 식당에는 가본 적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청와대에 고소인들의 통화 내역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일 청와대 고소대리인을 불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고소장에 이름을 올린 8명의 행정관, 비서관들 중에 1~2명이 직접 나와서 고소인 조사를 받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정 개입 의혹'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박관천(48) 경정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세계일보는 지난달 28일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했다.

문건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포함한 비서진 10명을 '십상시'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정씨와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중에는 핵심 3인 외에 신동철 정무비서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과 음종환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춘식 행정관, 이창근 제2부속실 행정관 등 5명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날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관천 경정을 우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형사1부에서 문건 작성 과정을 조사하고, 유출과 관련해 특수2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전달한 뒤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연평도 포격 후 골프, 국민께 사과"

박인용 후보자 "국민 안전위해 헌신하겠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후보자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틀 후 골프를 쳐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박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당시 비록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세월호 사고 이후 4개월 동안은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위장 전입과 20여 차례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지적에는 "제 불찰이며 잘못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잘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세월호 참사는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안겼고 무거운 반성과 대책 마련의 계기를 만들었다"며 "국민 안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로서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野 당권주자 빅3, 다음주 비대위원 사퇴할 듯

새정치민주연합의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재인·정세균·박지원 비대위원이 이르면 내주께 비대위원직을 동반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의원은 최근 문희상 비대위원장에게 전당대회준비위가 전대 룰 마련 목표일로 정한 오는 9일께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는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4일 알려져 문 의원의 전대 출마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들 비대위원 3인방의 일시 지도부 동반 사퇴가 이뤄지면 새정치연합이 전대 모드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현정기자

"창의적 재정정책 펼칠 것"

최경환 "민간자본 투자 확대…새 방식 만들겠다"

"새로운 유형의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해 '창의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리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도 창의적인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우선 민간자본이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투자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보전하고 이익은 공유하는 새로운 유형의 투자방식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민간투자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에 민간자본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건설공사의 지연을 초래하는 문화재 보호 규제와 문화재 주변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건설 공사 도중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문화재 보호를 위해 공사기간 지연, 조사 비용 등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과도한 고도제한과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도 줄여가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유산이지만 과도하고 경직적인 규제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중소기업 연구 개발 인력 수급 애로 완화 ▲문화재 규제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균기자 kaal@metroseoul.co.kr

정시 전략 준비 '치열' 4일 오후 서울 회기동 경희대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2015학년도 정시판책의 이해와 지원전략 설명회에서 대학 지원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시 전문가의 강연을 들으며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을 보호하라" 대테러훈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12일)를 일주일 앞둔 4일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야외주차장에서 경호안전통제단 주관으로 열린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경찰특공대가 회의장을 장악한 테러범을 제압하고 정상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지역 유치원 지원 취소 '대란'

주먹구구 입학 정책에 학부모들 우왕좌왕

서울 지역 유치원들의 2015학년도 원아모집 추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3일 서울시교육청에 유치원에 중복지원한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을 취소시킨다는 공문을 내려보내자 학부모들이 유치원에 달려가 입학지원을 부랴부랴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각 교육지원청과 시내 유치원에 '2015학년도 원아모집에서 중복지원이다 중복등록한 유아는 모든 유치원에서 합격이 취소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앞서 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은 가군(4일) 나군(5일) 다군(10일)으로, 공립유치원은 가군(10일)과 나군(12일)으로 나누고 나서 추첨일 당 한 곳씩 총 네 차례만 지원하게 하는 유치원 원아모집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 지원자 명단을 이달 15일까지 모두 교육청에 제출하라고 유치원에 지시했다.

이에 같은 군내 여러 유치원에 중복지원한 학부모들은 잇따라 입학지원을 취소하고 있다.

학부모들도 상황이 절박하니 중복지원은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집 근처 유치원들이 한 군에 몰려 배치되는 바람에 최악의 경우 한 곳에만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분만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송파구 가락동은 동네 유치원 다섯 곳 중 네 곳이 나군에 속해 5일 추첨을 하는데 이들 유치원은 모두 서로 반경 800m 이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단 탈락하면 추가합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크다.

/유주영기자 boa@

'성희롱' 박현정 서울시향 대표, 사의 번복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 사무국 직원들로부터 성희롱·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받은 박현정 대표이사가 지난달 서울시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0월 14일 정명훈 예술감독으로부터 서울시향 직원들의 탄원서를 접수, 조사와 법률검토를 지시했다.

같은 달 15일 직원들은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표이사 해임을 요청했다.

박 대표는 28일 시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11월 중순에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10월 29일 시장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표명하며 면담을 요청, 당초 사임키로 했던 11월 중순보다 늦은 이달 1일 두 사람이 만났다.

그러나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갑자기 물러나지 않겠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향 사무국 직원 17명은 지난 2일 배포한 호소문에서 박 대표가 작년 2월 1일 취임 이후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으로 인권을 짓밟고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인의 자녀나 제자를 채용하거나 무분별하게 인사 규정을 개정하는 등 인사 전횡을 했다고 밝혔다. /유주영기자

오룡호 사망자 20명으로 늘어

정부, 수색작업에 초계기·경비함 파견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사조산업 원양 트롤어선 '501 오룡호' 수색 작업 나흘째인 4일 선원 8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숨진 선원은 20명으로 늘었다. 승선원 60명 가운데 7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33명은 여전히 실종상태다.

사조산업은 3일 하루에만 실종 선원 시신 8구를 인양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인양된 시신은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 선원 2명, 필리핀 선원 2명, 국적 미확인 선원 2명이다.

사조산업은 이날 김계환 501 오룡호 선장과 같은 회사 소속 69오양호 이양우 선장, 카롤리나77호 김만섭 선장의 교신 내용을 공개했다.

오룡호는 지난 1일 5시께 고기를 저장하는 어창에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교신을 최초로 69 오양호에 한 뒤 배수 작업을 진행해 복원력을 되찾았다가 다시 물이 차면서 기울고 있다는 교신을 재차 했다. 이후 4시께 김 선장이 카롤리나호 김 선장 등에게 "갑자기 저러실 수위가 높아지고 왼쪽 경사가 더 심해져 퇴선해야겠으니 구조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오룡호는 빠른 속도로 가라앉아 오후 5시 15분께 침몰했다.

교신 내용으로 볼때 오룡호는 1차 침수 후 2차 침수가 발생하면서 복원성을 상실하고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룡호 수색구조에 초계기 2대와 경비함 1척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경우기자 cyclone@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 2016년 합병

서울 지하철 양 공사가 2016년 상반기까지 통합된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4일 "노동조합과의 교감이 이루어지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합병을 2016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려고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994년부터 지하철을 분리운영하며 각각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을 관리해왔다.

서울메트로가 단독으로 관리하던 노선을 나눠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준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비용 중복 등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20년간 분리운영을 한 결과 현재 서울 지하철의 적자는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산하 공기업 컨설팅을 의뢰했을 때 맥킨지는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을 제안했다.

맥킨지는 통합 실현 시 4년간 1411억원의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그러나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것은 노조의 반대때문이었으다.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시의 방침에 따라 논의가 진전됐다.

/유주영기자

안보공단, 서비스업 근로자 사고예방 활동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겨울철 야외작업이 많은 아파트 경비, 청소, 여관자 배달 등 서비스업종 근로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에 나선다.

공단은 사고사망자가 주로 발생하는 음식업, 도·소매업, 건물관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운수업 외 5개 업종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례와 안전대책을 제시한 중대재해 사례집을 보급한다.

이 사례집에서는 사고 사망재해 사례별 발생원인과 예방대책을 설명했다.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HongKong

吳敦義改口 暫代黨主席

metro France

Une bouture du marronnier d'Anne plantée à Lyon

ícidios no país
ue a dos Brics

HOMICÍDIO NOS BRICS

안네 프랑크의 나무 리옹에 뿌리

마크 아론 광장에 안네 프랑크 마로니에 나무의 꺾꽂이 가지가 프랑스 리옹 제 3구에 심어졌다. 이 마로니에 나무는 안네가 암스테르담 은신처의 벽 구멍을 통해 지켜보았던 것으로 '안네의 일기'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안네 프랑크 재단은 병든 마로니에 나무의 가지를 잘라 최근 몇 년간 여러 기관과 세계 도시에 나누어주고 있다. 안네의 마로니에 나무는 워싱턴의 국회의사당과 프랑스 국회, 암스테르담에 뿌리를 내렸다.

metro Brazil

살인률 세계 평균보다 3배↑

브라질 살인률이 세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 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의 살인률이 브릭스 국가(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평균치보다 73% 더 높다. 브라질의 살인률은 세계 평균인 2%보다도 3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 살인 사건 10%가 브라질에서 발생한 것이니. 한편 지난 해 기준 브라질에서 총 5만808명이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다. 즉 10분 당 1명이 살해당한 셈이다.

제주도는 '왕서방' 도박꾼 천국

5성급 호텔 등 혜택으로 많이 찾아…중국 세계 2위 해외 도박국 불명예

도박을 즐기는 '왕서방'의 제주도 방문이 잦다. 중국에서 아름다운 관광지의 명성을 누리던 제주도가 도박꾼의 천국이 되고 있다.

최근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도박산업 수익은 4400억 달러(약 490조3000억원)다. 중국인이 해외 도박에 쓴 돈은 740억 달러다. 1190억 달러를 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해외 도박국이다.

특히 중국 당국은 한국을 찾는 도박꾼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랴오닝성 공안청은 랴오닝성의 도박 범죄자들이 대부분 제주도를 찾았다고 했다. 저장성 공안청도 제주도 비자 면제 실시 이후 중경 도박 국가가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등에서 마카오와 한국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한국 카지노의 편리한 서비스 때문이다. 중국 도박꾼은 한국 내 지정계좌에 자금을 입금해 놓으면 5%의 반환금, 무료 비행기 티켓, 5성급 호텔, 유흥서비스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한국 카지노는 관리자를 계속 중국으로 파견하고 중국 대리인을 고용, 중국 도박 원정단이 한국을 찾도록 만들었다.

중국 자본과 중국인이 제주도에 유입된 것도 큰 원인이다. 한국 카지노 17개 중 8개가 제주도에 있는데 주변 대형 카지노관은(예정사)다수는 중국인이 경영하고 있거나 중국 자본에 포함되 있다. 자연스럽게 중국 도박꾼을 끌어들이기 쉬운 방향으로 마케팅이 이뤄진다.

지난달 28일 중국 공안부 치안관리국은 해외 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전국 18개 성·시의 공안기관 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공안국 치안관리국 담당자는 "원정 도박은 개인의 경제적 손실과 가정 파괴를 초래하는 것은 물론 중국 실물 경제에 타격을 준다. 나아가 국가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치안 문제와도 연결된다"며 도박꾼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조선미 기자

metro Russia

강인한 마초 향기? '푸틴 초콜릿' 인기

러시아의 초콜릿 회사 쇼코박스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상화를 포장지에 새긴 '푸틴 초콜릿'을 출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쇼코박스는 푸틴 대통령이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유명한 미술가 알렉세이 세르기엔코가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렸다고 밝혔다.

쇼코박스는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 포장지에는 송아지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는 대통령의 초상화를, 쌉싸름한 다크 초콜릿 포장지에는 대통령의 강인하고 단호한 이미지를 부각시킨 초상화를 사용했다.

쇼코박스의 홍보담당 매니저 올레샤 마르코베츠는 "푸틴 초콜릿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인기를 마케팅 전략에 접목시킨 것이 히트를 쳤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초콜릿은 러시아 내 20개 주요 도시에서 판매 중이며 곧 외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크렘린 궁은 대통령의 얼굴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쇼코박스 측은 푸틴 초콜릿의 경우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마르코베츠는 "우리는 초콜릿 포장지에 대통령의 사진이나 얼굴을 넣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렸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크렘린에서 초콜릿 판매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요구나 반응도 없었다"고 했다.

한편 쇼코박스는 얼마 전 포장지에 2015년 러시아 지도가 그려진 초콜릿을 판매하다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러시아의 새 영토로 크림자치공화국을 그려 넣고, 미래의 영토라며 발트해 3국과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지아셀 내뤄예스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삼성 여성공채 임원시대 개막

1994년 입사 부장 3명 상무로…규모 축소에도 약진

4일 삼성그룹이 발표한 임원 인사에서 승진한 삼성전자 여성 임원들. 왼쪽부터 전무로 승진한 이혜승 상무, 상무로 승진한 박정선·박진영·류수정·전은환 부장. /삼성제공

삼성그룹이 여성 공채 임원시대를 열었다.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한 여성 3명이 여성 공채 조기 범버인 1994년 입사 동기다.

삼성그룹은 4일 사 별로 2015년 정기 임원 인사를 발표했다. 총 353명이 승진했으며 56명의 발탁인사를 했다.

부사장 승진자는 42명, 전무 58명, 상무 253명이다. 발탁 인사는 부사장 8명, 전무 16명, 상무 32명이다.

승진자 규모는 지난해(476명)보다 123명 줄었다.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도별 승진자 규모는 인사 발표 시점 기준으로 2011년 501명, 2012년 485명, 2013년 476명이다.

그럼에도 높은 성과를 올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는 예년보다 승진 규모가 커졌다. 2013년 14명, 2014년 20명에 그쳤으나 이번에는 22명이다.

주목할 부분은 신임 여성 임원 수가 지난해(15명)와 비슷한 14명이라는 점이다. 전체 승진자 규모가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여성 인력이 약진한 셈이다.

여성 임원 승진자 중 부장에서 상무로 승진한 신임 여성 임원은 13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전자 박정선·박진영 부장, 삼성SDS 정연정 부장 등 1994년 공채로 들어온 여성 부장들이 대거 신임 임원으로 승진했다.

경영관리 전문가인 박정선 상무는 재무시스템 구축과 비용 효율화로 무선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반도체 설비구매 전문가인 박진영 상무는 설비 투자비용 절감과 설비사양 표준화 주도로 반도체 사업 일류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정연정 상무는 시스템 전문가로 고객사 핵심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해 고객신뢰에 기반을 둔 회사성장에 이바지했다.

이혜승 삼성전자 상무는 여성 임원 가운데 유일하게 전무 자리에 올랐다. HP 출신의 IT 상품전략 전문가인 이 전무는 프린터사업을 이끌었다.

삼성중공업에서는 최초로 여성 임원이 나왔다. 런던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세계 최초 초대형 에탄운반선 수주를 따낸 공로를 인정받은 박형윤 부장이 상무로 승진했다.

여성 임원 승진자 중 삼성전자 소속이 8명으로 과반(57%)을 차지했고 평균 연령은 47.0세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행복주택' 2만여 가구 연내 2만7천가구 전망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만7000여가구가 연내에 사업승인이 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현재 행복주택 약 2만1000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을 완료했다. 이달중 약 6000가구를 추가해 올해 목표인 2만6000가구 사업승인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은 29곳 2만683가구로 이 중 수도권이 23곳 1만6139가구, 지방이 6곳 4544가구다.

수도권은 서울 9곳 3551가구, 인천 2곳 816가구, 경기 12곳 1만1772가구다.

서울의 경우 가좌(362가구), 오류(890가구), 삼전(49가구), 항원(924가구), 신내(200가구), 강일(346가구), 천왕2(319가구), 천왕7(374가구), 내곡(87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또 인천에서는 주안(136가구), 서창2(680) 등 2곳, 경기에서는 화성 동탄2(610가구), 고양 삼송(634가구), 김포 한강(1500가구), 파주 운정(1700가구), 의정부 민락2(812가구), 과천 지식(1464가구), 오산 세교(720가구), 하남 미사(1894가구), 위례(860가구) 등 15곳이 각각 사업승인 절차를 마쳤다.

지방에서는 대구 신서혁신(1100가구), 대구 테크노산단(1022가구), 광주 효천2(950가구), 충북 충주(296가구), 충남 당진(696가구), 전남 김해진영(480가구)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김두희기자 kimdh@

글로벌 무역강국 파이팅 제51회 무역의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1조달러 탑 앞에서 한국무역협회 임직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화건설, 위례신도시 분양 '첫선'

한화건설이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로 평가되는 위례신도시에 수익형부동산인 '위례 오벨리스크'를 선보인다.

오피스텔 321실과 상가 193호다. 이 중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3㎡ 68실 ▲33㎡ 8실 ▲47㎡ 22실 ▲50㎡ 48실 ▲73㎡ 105실 ▲84㎡ 70실로 이뤄졌다. 상가는 1층과 2층에 각각 132호와 61호가 공급된다.

위례 오벨리스크가 들어설 업무용지 24블록은 위례신도시에서도 핵심권역으로 꼽히는 휴먼링과 트랜짓몰 안에 있다.

휴먼링은 자연과 입체적으로 분리된 인간 중심의 친환경 녹지 공간이다. 신도시 내 어디든 도보 또는 자전거로 10분 안에 도달 가능한 입지가 특징이다. 또 트랜짓몰은 위례를 대표하는 테마형 스트리트 상가로, 유동인구의 집중이 기대된다.

위례 오벨리스크 조감도

강남과 바로 연결되는 위례~신사선 위례중앙역(예정)과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트램역(계획)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지하철 8호선·분당선 복정역, 8호선 장지역과 우남역(예정) 등으로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위례 오벨리스크는 위례 중심에 들어서는 건물답게 층별 돌출 프레임을 통해 화려한 외관에서 탈피할 예정이다. 특히 전면부에 위치한 광장과 연계해 개방적인 외관을 도입하고, 오피스텔 3개 동을 V자형으로 설계해 사생활 보호에 채광·전망 극대화까지 노릴 계획이다. /박선옥기자 psoo@

market index (4일)

코스피	코스닥
1988.61 (+16.70)	543.16 (+3.14)

금리	환율
2.16 (+0.04)	1115.00 (+2.80)

뉴스&뉴스

소니코리아 미러리스 A6000 화이트 버전 출시 소니코리아가 미러리스 카메라 A6000의 새로운 화이트 버전을 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소니코리아 제공

한상범 사장 금탑훈장

● LG디스플레이 한상범 사장이 어려운 사업환경에서 높은 실적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LG디스플레이는 한상범 사장이 5일 열리는 제51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한다고 4일 밝혔다.

한 사장은 33년 동안 IT핵심 부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에 종사하며 제품·장비 개발, 생산 공정,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경험한 IT업계 최고 전문가다.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이 세계 1위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장성우기자 ysw@

두산重, 52세 이상 희망퇴직

● 두산중공업이 52세 이상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8일부터 창원 본사와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과장 이상급 52세 이상 사무직 직원 45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희망퇴직은 중공업 업계가 처한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고참 간부들로 인한 인사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은경기자 n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 자하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 인쇄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81
2008년 5월 8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85

은행들 연말 맞아 선물 이벤트 '봇물'

뱅크월렛카카오 통장·세제형 펀드 출시 다양한 행사

주요 은행들이 연말을 맞아 다양한 경품 행사를 진행하며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행복가득 행운가득 세제형 펀드 이벤트'를 오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신한은행에서 판매 중인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대상이며, 추첨을 통해 경품 당첨 기회를 제공한다. 이벤트 대상 인정 기준은 신규계좌의 경우 두 상품 모두 신규금액 10만원 이상과 자동이체 기간 5년 이상을 동시 충족하면 된다. 연금저축펀드는 타 금융기관에서 이체 받아 신규 되는 계좌의 잔액이 연말까지 50만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또 소득공제장기펀드는 계좌별 1회,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별 2회의 추첨 기회를 준다. 1등은 최신 스마트 TV(1명), 2등 휴롬 녹즙기(3명), 3등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50명) 등이 제공된다.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은 뱅크월렛카카오 전용 충전계좌인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출시 기념으로 이달 27일까지 카카오톡 이모티콘과 캐릭터 인형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를 연다.

우선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에 가입하고, 충전계좌로 등록한 선착순 1만5000명에게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통장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인형을 제공하고,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 인증사진을 올린 고객 중에서도 20명을 추첨해 캐릭터 인형을 제공한다. 한편, '우리 뱅크월렛카카오 통장'은 뱅크월렛카카오 충전계좌로 등록시 연 1.0%의 금리우대와 각종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통장과 현금카드 디자인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

외환은행도 이달 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 대출 연말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행사 기간 인터넷·스마트폰으로 외환은행 리더스론, 예금담보대출, 급여통장플러스론을 신청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현금 100만원(1명), 현금 20만원(10명) 등을 증정한다.

NH농협은행은 겨울철 환전 성수기를 맞아 '"굉송 송년의 초대장" 이벤트'를 펼친다. 건당 300달러 이상 환전이나 해외송금을 한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제공한다. 1등 1명에게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 2명에게 여행상품권 50만원을 각각 증정한다.

/김문수기자 ankn1@metroseoul.co.kr

연 7% 수익 상품 ELS 판매

유진투자증권은 5일 오후 1시까지 연 7.02% 수익을 추구하는 '제196회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KOSPI200과 HSCEI, EURO 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간 운용된다.

만기까지 조기상환되지 않고 보유하게 될 경우 최대 21.0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설정 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95%(1차, 2차), 90%(3차, 4차), 85%(5차) 이상인 경우 연 7.02%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만기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60% 미만으로 한번도 하락한 적이 없거나 만기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55% 이상이면 총 21.06%의 수익률로 만기상환된다.

이번 ELS의 모집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문수기자 hjkim@

中 수출입 기업 위한 '위안화 외화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4일 기업고객의 위안화 결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위안화 외화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장에 맞춰 나온 이 상품은 국내 기업이 중국과 무역을 하거나 무역외 거래를 할 경우 국외사용 실수요 결제용 자금을 지원한다.

또 기존의 미달러화 대출이나 엔화 대출과 같이 위안화로 표시된 해외사용 용도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안화 외화대출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장 등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거래 기업고객에 도움을 드리고자 출시했다"며 "기존 한·중 통화스왑 자금을 재원으로 한 위안화 대출과 달리 중국 역외 시장의 조달을 통해 금리가 1%정도 낮아 중국과 위안화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기업고객의 니즈 충족을 위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아란기자 aran0203@

삼성자산운용 신임 사장에 구성훈씨

삼성자산운용의 신임 사장에 구성훈(사진)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장이 선임됐다.

4일 삼성자산운용에 따르면 구 신임 사장은 삼성증권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윤용암 전 사장을 이어받아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구 사장은 고려대 경제학과를 박사 과정까지 졸업했으며 1987년 삼성그룹에 입사해 삼성생명 투자사업부장, 재무심사팀장 등을 거친 자산운용 전문가다.

삼성생명은 올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흩어져 있던 삼성자산운용 지분을 모두 사들여 100% 자회사로 편입시켰다.

/김문수기자

캐피탈·저축은행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줄 듯

이자율 환산 방식이 바뀜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캐피탈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3일 제 23차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법정 금리상한 인하와 대부중개수수료 도입, 불법대부광고의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대부업 변경과 유권해석 등의 제도 변경사항이 반영된다.

또 대출상품의 법정 이자율 상한 초과여부도 정비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대부업법상 중도상환수수료의 이자율 환산 방식은 종전의 대출상환 후 잔존방식에서 실 대출기간으로 바뀐다.

다만 대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초단기 상환인 점을 감안해 대출 기간을 30일로 간주해 이자율을 계산한다.

이번 제도 변화를 적용하면 캐피탈사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고금리 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는 금감원 검사가이드를 반영한 '현장검사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대부업체에 대한 지자체 검사와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박아란기자

COMPETITION
2014년 12월,
칸 영화제가 선택한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영화!
줄리엣 비노쉬
크리스틴 스튜어트
클로이 모레츠
HOT ISSUE
특급 배우 김희애, 예고편 내레이션
그녀가 극찬한 은막 뒤 여배우들의 진짜 이야기!
제67회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노미네이트
전세계 언론과 평단의 쏟아지는 찬사!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세 여배우의 눈부신 연기 대결!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녀〉를 잇는
2014년 마지막 아트버스터!
알프스 실스마리아의 아름다운 영상미!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 매혹적인 OST!
것이 공존하는 그녀들의 무대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작품
15세 이상 관람가
12월 18일 대개봉

독거노인 보호 공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외환은행은 4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거노인 보호 유공단체부문'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속위욱 고객센터장(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이 수기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단은주 과장(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이상혈 고객센터 금융플라자 팀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환은행 제공

생보협회 이수창號 출범

만장일치 회장 추대…업계 현안 해결 탄력 받을 듯

이수창(65·사진) 전 삼성생명 사장이 4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회원사 만장일치로 제33대 회장에 공식 선임됐다.

이 신임 회장은 오는 9일부터 3년간 자산 500조 생보업계의 수장 역할을 맡게 됐다.

이 신임 회장은 업계 사장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만큼 앞으로 '산적'한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총회는 23개 회원사 중 22개사가 참여했다. 이들 사장단은 모두 이 신임 회장을 지지하기로 합의하고 투표 없이 추대했다.

이 신임 회장은 탁월한 경영감각과 조직장악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한 그는 지난 1973년 삼성그룹 공채 14기로 삼성생명에 입사한 이후 제일제당, 삼성중공업 등 그룹 계열사를 거쳐 1993년부터 삼성생명 상무, 삼성화재 상무, 부사장 등을 지냈다. 특히 삼성화재와 생명에서만 12년 동안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해 보험업계 전문 경영인으로 꼽히고 있다.

40년간 삼성 맨 경력은 특히 10년 만의 민간 출신 회장으로 선임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저금리 지속에 따른 업계 불황은 업계의 가장 큰 문제다.

앞서 생보업계는 저금리 기조 지속에 따른 장기불황 지속으로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이 올해에만 1800여명을 구조조정했다. 연말에도 이들 대형사와 미래에셋 에이스생명 등이 인원감축을 진행했거나 할 계획이다. 또 전속 설계사의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 이동에 따른 영업력 약화, 감독당국의 소비자보호 강화에 따른 규제 강화 등 업계 문제에 있어 협회 수장으로서의 책임감도 막중하다.

중소사를 끌어 안는 포용력도 발휘해야 한다. 협회가 분담금을 많이 내는 대형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그간 내부에서 대형사와 중소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도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최현만 미래에셋생명 수석부회장은 "최근 생보업계가 저금리 지속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 이 신임 회장의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 등의 능력을 인정받아 두 곳없이 만장일치로 선임됐다"며 "앞으로 이 신임 회장이 해야할 역할이 막중하기에 업계 전체가 신임 회장은 도와 난국을 타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금감원 수석부원장 서태종씨 유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서태종(51) 상임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금융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4일 "현재 공석인 금감원 수석부원장 자리에 서태종 증선위원이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며 "나머지 두 명의 부원장 자리도 인선작업이 막바지"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이 금감원 부원장 임면을 제청하면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서 상임위원은 전남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9회로 재무부와 금융위원회에서 공직생활을 했으며 주 OECD대표부 참사관,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50대 초반의 서 위원이 수석부원장으로 오면 진웅섭(55) 금감원장에 이어 금감원 임원자리의 물갈이 인사 폭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됐다.

남은 부원장 두 자리 후보로는 박세춘, 이동엽 부원장보로 내부승진이 점쳐진다.

금감원은 인사검증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부원장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원장보를 포함한 후속 인사는 내년 1~2월 중으로 차례로 단행할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자사주 매입 6년 만에 최대

올해 국내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교보증권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사주 매입을 공시한 52개사의 순매입 규모는 2조6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자사주 순매입 2505억원까지 합치면 2조9213억원으로 지난 2008년 5조9153억원 이후 6년 만에 최대치에 달한다.

국내 증시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2250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0년 1조5177억원, 2011년 2조8812억원으로 늘었다가 2012년 1조1663억원, 지난해 3656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그러나 올 들어 자사주 매입이 활발해져 지난 10~11월에만 각각 5300억원, 9300억원을 기록했다.

SK를 시작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삼성화재, 우리금융지주, 두산, 한화생명, 네이버 등 대형주들이 잇따라 자사주를 사들인 영향이 컸다.

증시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현금배당보다 자사주 매입을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김민지기자 hdim04

연준, 美 경제·고용 낙관적 전망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경제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준은 이날 발간한 경기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담당 지역의 최근 경기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 지출이 꾸준하게 늘면서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이어 "저유가가 소비 지출에 도움이 되고 있고, 앞당겨 찾아온 추위도 상당수 지역에서 겨울 의류 등의 판매를 진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민우기자 minu

펀펀(FunFun)한 해피데이 아주캐피탈은 서울 여의도 소재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을 위한 '펀펀(FunFun)한 해피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일 열린 '펀펀(FunFun)한 해피데이' 행사에서 이윤휘(가운데) 사장과 고객행복센터 상담사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아주캐피탈 제공

산업銀, 국내 최초 '와바'에 상표권 담보 자금지원

KDB산업은행이 브랜드를 담고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4일 산업은행은 맥주전문 브랜드 '와바'를 보유한 ㈜인토외식산업에 상표권 유동화 방식으로 50억원 규모의 자금을 3년 만기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상표권 유동화'란 상표권을 보유한 회사가 가맹점에게 노하우 등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로열티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이는 ABS, ABL 등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간 특허권 위주의 지식재산권(IP)담보대출과 IP구입자금대출 등을 통한 지원은 있었지만 상표권 가치를 유동화에 적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IP가치 평가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한 상표권 가치도 유동화 대출의 담보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인 ㈜인토외식산업은 와바 브랜드 상표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채권과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갖게 된다.

이해용 KDB산업은행 자본시장부 부장은 "이번 상표권 유동화는 기존 창조금융의 대표상품인 IP담보대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산은은 앞으로도 IP를 활용한 다양한 유동화 상품을 개발해 창조경제 구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alive

'아이폰6 대란' 유통점에 첫 과태료

방통위, 이통3사에 각 8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불법 보조금으로 이통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유통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2일 이통 3사와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해 단말기 지원금을 과다 지급한 이통3사와 유통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지난 10월 31일~11월 2일 이통 3사와 44개 유통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통 3사는 아이폰6 16G 모델에 대해 판매 장려금을 41만~55만원까지 상향 조정해 대리점에 시달했다. 그 결과 44개 조사대상 유통점 중 34개 유통점에서 총 540여건의 단통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 중 아이폰6에 대해 불법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만 425건이었다. 공시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평균 27만2000원(아이폰6 28만8000원)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번 사례의 경우 위반 관련 매출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초기부터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해 이통 3사에 기준금액 최고 한도인 8억원을 각각 부과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위반 건수가 1건으로 경미한 3개 유통점은 100만원, 2건 이상인 나머지 19개 유통점에는 50%를 가중한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통법상 일선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되며 50%의 가중액이 더해질 수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방통위는 이번 제재대상 22개 유통점 외에 추가 12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과태료는 대표에게 부과하면 되지만 향후 단통법에 맞춰 정책을 수행하는 데 복잡하게 이뤄진 대규모 유통망 관리 체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사무국에 이에 대한 파악을 지시했다.

이어 "공정한 시장환경에 제약이 되지 않는 선에서 대규모 유통망 관리 체계, 과징금 산정구조를 재검토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참여하는 시장감시단 운영과 중고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에 대해 고가 요금제 등 편법적인 것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별도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마련한 '수원 효사랑 잔치' 삼성디지털시티는 4일 수원시 영통구 우만동 노블레스웨딩컨벤션센터에서 가족이 없[illegible] 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칠순, 팔순, 구순 잔치를 하지 못한 노인 240명을 초청 '수원 효사랑 잔치'를 열었다. /연합[illegible]

청약 1순위 마감지역, 연내 분양 '주목'

통상 비수기인 12월에 들어섰으나 모델하우스를 찾는 인파가 급증하는 등 분양시장은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등 내년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수요자들이 연내 청약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 역시 이에 발 맞춰 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다 11월에 분양하지 못한 사업장까지 더해질 전망이어서 연말 비수기임에도 성수기 못지않게 분양 물량이 풍성할 예정이다.

4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청약 1순위 마감지역 중 연내 남은 분양예정 물량(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오피스텔 포함)은 16개 사업장에서 총 1만1576가구, 총 9318가구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순위 마감을 기록한 강남, 세곡, 위례·세종을 비롯해 택지지구·재건축 재개발, 신규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예비청약자라면 눈여겨 볼 만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블록에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마스터'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 총 119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지하철 5호선 마곡역과 송정역이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 단지 안근에 롯데몰 김포공항, 이마트(예정),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이용이다. 부속병원(예정)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교육시설로는 공진초, 공항초, 송정중, 공항중, 명덕외고, 수명고 등이 인접해 있다.

대우건설이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C2-4·5·6블록에 공급하는 '위례 우남역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3㎡ 총 630가구로 구성된다. 중심상업시설과 서울지하철 8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경전철 위례중앙역(예정)을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예정)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다.

한양이 세종 3-3생활권 L2블록에 공급하는 '세종 한양수자인 엘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1층~지상 2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760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인근으로 근린공원과 금강 수변공원, 완충녹지와 가로수길이 조성된다. 도보거리에 초·중·고교와 보육예정 부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고 내년 세종시 3생활권과 대덕테크노밸리를 잇는 도로도 개통될 예정이다.

/김문식기자 kim[illegible]

[꼼꼼IT리뷰] 아이리버 스마트웨어 이발란치

'야외 활동에 꼭 필요한 제품'

보온성 기능 충실 보조배터리도 갖춰

MP3플레이어 업체로 잘 알려진 아이리버가 패션 브랜드 '파손스'와 손잡고 내놓은 첫 스마트웨어 브랜드 '이발란치'를 일주일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다.

겨울철 두꺼운 겉옷을 입을 경우 옷태가 살지 않지만 보온성과 경량성까지 갖추고 있는 이발란치는 이러한 부분을 모두 잡아냈다.

패션에 민감하고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제품이다. 우선 제품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패딩코트와 스타일이 비슷하다.

덕분에 직장인들이 정장이나 깔끔한 의상 위에 입기에 부담 없다. 무엇보다 이 옷의 포인트인 면상발열체와 연결되어있는 컨트롤러(3120mAh)다. 면상발열체의 포켓 수납형 컨트롤러를 옷 안쪽에서 케이블로 연결해 일반 코트와 똑같은 핏을 연출할 수 있다.

보온성 기능도 충실히 담았다. 외출전 코트를 입고 컨트롤러에 강, 중, 약으로 온도를 설정해 1분 이내에 최대 52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사용하면서도 적정 온도 이상이 되면 억제되어 과열위험도 방지해주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 리모컨을 이용해 무선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 있어 편리함까지 더했다.

면상발열체가 A4보다 작은 사이즈라는 점과 부드러운 원단으로 처리되어 옷을 착용했을때 부담감은 없다. 최근 몰아친 한파로 아침 출근길 기온이 영하 8도 까지 떨어졌지만 이발란치를 입고 있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자 연상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상됐다. 배터리는 출·퇴근길(90분소요)에만 사용했기 때문에 완충 상태에서 이틀동안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특히 보조배터리 기능도 갖추고 있어 배터리와 일체형인 아이폰 사용자들의 활용성을 높였다. 컨트롤러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다만 면상발열체가 어깨나 가슴부위에도 적용됐으면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다.

일주일간 사용한 결과 따뜻함과 디자인, 경량성까지 갖춘 제품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시즌에 출시될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되는 제품이다.

/정희순기자 jsw[illegible]

김치냉장고 대용량이 잘나간다

김장하는 가정 늘어나자 꾸준히 판매 증가
스탠드형 400ℓ 30% ··뚜껑형 220ℓ 73%

올해 출시 20주년을 맞이한 김치냉장고 시장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꾸준히 판매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부동산 완화와 배추값 폭락으로 직접 김장하는 가정이 늘면서 모델에 상관없이 대용량 제품이 주목받고 있다. 대유위니아는 4일 김치냉장고 딤채 10~11월 두 달 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판매량 중 스탠드형과 뚜껑형 관계없이 대용량 제품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4룸 468ℓ 이상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판매는 전체 스탠드형 제품 판매량에 30% 이상을 차지했다. 멀티형 5룸 독립공간을 적용한 2015년형 딤채는 대용량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판매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뚜껑형 김치냉장고도 용량이 큰 제품이 잘 팔렸다. 220ℓ 주력제품의 판매량은 지난해 10~11월에 비해 12.5% 늘었다. 올해 두 달간 120~180ℓ 제품의 판매 비중은 전체 뚜껑형 제품의 26.6%를 차지한 반면, 200~221ℓ 제품은 73.4%로 용량이 큰 대용량 김치냉장고 판매가 더 늘었다. 전체 김치냉장고 판매 중 절반이 넘는 약 57.1%가 대용량 제품이였다.

김치냉장고 용량은 1995년 52ℓ로 시작해 1999년 120ℓ, 2000년 170ℓ, 2002년 220ℓ로 해마다 늘어났다.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인기를 끌면서 용량은 305ℓ에서 355ℓ, 468ℓ로 더욱 커졌다. 2012년부터는 560ℓ까지 늘었다.

2015년형 딤채와 모델 박기량

최연근 대유위니아 마케팅담당은 "김치냉장고가 김치 보관과 숙성이라는 본연의 용도 외 과일야채 등 신선 식품 보관까지 쓰임새가 확대되면서 대용량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대용량 선호 추세는 향후 수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105만대 판매량을 보였던 김치냉장고 시장이 올해는 115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치냉장고 업계 관계자는 "대용량 제품 중에서도 스탠드형보다 뚜껑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해보다 현재 15%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기대치를 120만대로 예상했지만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성훈기자 sfw@metroseoul.co.kr

'클라우드법' 연내 통과되나

미방위, 공청회 … '국정원 개입 조항' 수정될 듯

지난해 12월 상정돼 국회에 계류 중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클라우드 발전법)'이 연내 통과라는 목표까지 한 걸음 다가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실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관규 상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와 서석진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이 참석했다.

공청회에서는 그 동안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의 클라우드 서비스 개입 문제와 이용자 정보 보호, 보안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공기관이 민간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고 발생 시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오길영 교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네트워크 기반 사업이므로 그 주무기관은 국정원이 아닌 미래부"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유사한 규정을 가진 정보통신망법을 살펴보면 그 신고 대상은 미래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미래부는 해당 부분에 대해 일부 수정한 안을 미방위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민영기 사무국장은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을 나눠 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물리적,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 업체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클라우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더라도 영역을 넘나들 우려가 없다는 뜻이다.

이어 보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개인이 돈을 갖고 있기보다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소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오히려 클라우드에 맡기는 게 보안성이 더 뛰어나다"며 "암호화와 이중화 등으로 계속 보완하고 보안 전문 인력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보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래부는 여야 의원들이 클라우드 산업 진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데다가 조만간 임시국회가 열리는 만큼 법안의 연내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혜인기자 hjung@

민영기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 오길영 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서관규 상명대 경영공학과 교수,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왼쪽부터) /연합뉴스

스펙은 줄이고, 능력중심 채용 늘리고 신용한 청년위원장 등 정부부처·민간·공기업 대표와 임원이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드림센터에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주최로 열린 '스펙초월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로 확보·특허등록 돕는다

대한상의, 중기 자문횟수 6000회 돌파

중소기업 경영주치의'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경영자문단이 출범 6년만에 자문 횟수 6000회를 넘어섰다.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 출신 CEO와 임원으로 구성된 상의 중소기업 경영자문단은 2008년 12월 출범했다. 현재 114명의 자문위원이 전국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노무, 생산·품질, 기술개발 등 경영전반에 걸쳐 무료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4일 상의 중소기업경영단은 "최근 경영자문단이 중소기업 사이에 입소문을 타며 자문횟수가 출범 6년만에 6051회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경영자문단을 찾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상의는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집중 자문하는 '원포인트 자문',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자문인 '종합경영자문', 6개월 이상의 밀착자문으로 경영해법을 제시하는 '경영멘토링'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경영자문을 받고 매출 증대와 판로 확보, 특허등록 등으로 경영성과가 크게 개선된 중소기업 대표들은 영상메시지를 보내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기가공식품 전문회사 농업회사법인 하늘빛 전형광 대표는 "대기업의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이 실천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으며 정형외과 부목을 생산하는 여명약 엄장환 대표는 "자문단 덕에 불가능했던 특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땀과 눈물로 얻어낸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뻔 했는데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자문을 원하는 기업은 상의 중소기업경영자문단 사무국(02-6050-3151~2)으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www.korcham.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박상훈기자

이리저리 떠도는 '반민특위' 표석

권기봉의 도시산책 <96>

서울 명동은 백화점 본점들이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역사도 어느 곳보다 오래됐을 정도로 상업의 역사가 깊은 곳이다. 동시에 한국의 정치사회사에서도 의미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해방 뒤 친일부역의 족적을 청산하기 위한 노력의 중심지도 바로 명동이었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즉 '반민특위'는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설치한 기구로, 일제의 통치에 적극 협력했거나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을 죽이거나 박해한 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였다.

그러나 반민특위는 오래 가지 못했다. '정의실현 보다는 '질서유지'를 우선시했던 미군정에 의해 친일부역자들이 다시금 권력을 쥔 현실에서 친일 청산은 쉬지 않았다. 친일부역자들의 경제적·물리적 힘에 기대어 1인 장기 독재를 꿈꾸던 이승만 입장에서도 반민특위의 존재가 달가울 리 없었다. 급기야 경찰을 동원해 완력으로 방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반민특위는 1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강제 해산되어버렸다.

친일 청산을 위해 노력하던 이들이 거꾸로 친일부역자들에 의해 '역청산'되어 버린 쓰라린 역사….

다행히 지난 역사를 모두가 잊고만 있는 건 아니었나 보다. 반민특위가 해산된 지 50년만인 1999년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반민특위 본부가 있던 KB국민은행 명동영업부 빌딩 앞에 그 역사적 사실을 알리는 표석을 세웠다.

그리고 최근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반민특위 표석이 원래 자리에서 지하주차장 입구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 너무 구석진 곳이어서 표석의 앞뒤면 내용은 읽을 수조차 없었다.

변화하는 시대의 또다른 징표일까? 장소는 기억을 지배하고, 기억은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시 있어서는 안 될 그 씁쓸한 기억을 잊지 않으려 살자 하는 표석마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단체가 나서서 세우고 그마저도 이리저리 수난을 당하는 현실이 해방 70주년을 앞둔 우리 사회의 민낯이다.

/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날씨

12/5 金 일출시각 07:31 일몰시각 17:1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532.co.kr

지역	기온
서울	-8/-3
청주	-7/-1
대전	-7/-1
전주	-6/1
광주	-3/2
제주	2/8
강릉	-7/2
울릉도	-2/1
대구	-4/2
포항	-3/3
울산	-3/3
부산	-2/5

2주 이상 코가 막히거나 두통이 지속되면 급성 축농증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리식염수로 하루에 2~5회 코를 세척하면 축농증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감기 가능 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강북삼성병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둥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칸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6	9		7			1		
			8		5		9	
							7	6
9					8	4		
	4						1	
		5	9					8
3	2							
	6		1		3			
		9			7		8	1

				1	7	3		
5					3			8
		7		2				
		2			8			7
	8	6				9	5	
3			5			1		
				8		5		
6			4					1
		1	7	5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펜시 스도쿠 프리미어 (지은이 고든 프렛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esaul.com

8년차 직장인, 휴직 후 유학 생각 중 결심했으면 실행, 사업쪽은 안 맞아

Q 신영미 남자 83년 4월 26일 음력 묘시

편안 1983 4 26(음) 묘시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년차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의 고민은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과연 내가 앞으로 이 직장에서 몇 할 수 있을까 라는 불안감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끌혁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을 하고 공부를 더 하거나 유학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학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내년 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저의 이런 고민은 옳은 걸까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선생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A 일주(日柱) 태어난 생일)가 기해(己亥)로서 비습한 토양과 같은 형상으로 사심이 건전하니 내심 비밀이 많고 소심하여 하는 일이 신통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파하는 충동적인 기질인데 타니대수(陀泥帶水) 박달라 진퇴니하이 불건한 구조입니다. 역마지(驛馬地)로 재복이 있는 편으로 평생 돈 걱정은 없으며 고향을 떠나 객지 생활을 하게 싶고 항시 먼 곳에 여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며 해외출입을 하게 됩니다. 올해 갑기합(甲己合) 갑목과 기토가 합하여 되어 현인이 무거워하게 되어 있는데 관살(官殺) 나를 극하는 오행)이 작용하여 일은 이익을 제어하거나 고달픕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 드리자면 기토(己土)사주가 역마살이 있어 외국에 유학을 생각하게 된 것이므로 순리대로 유학을 가도록 하세요. 오행을 다 갖춘 사주에 천림덕의 길신이 있으니 윗사람을 공경하면서 자신도 도움을 받는 길명입니다. 사주구조에 금기(金氣)가 세니 귀하의 취향이 인수격 위(를)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학문에 심취하고 작도를 걷는 사람인데 관귀학관(官貴學館)으로 지혜가 밝고 학문이 뛰어나 교육자로 성공하거나 공무원이 되면 승진이 빠를 뿐더라 입신출세 하고 고위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대운에서 장래 사업은 할 수가 없고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처궁이 불미하여 일찍 결혼하면 이혼수가 있으므로 결혼 시 반드시 궁합을 참고하십시오. 43세부터는 논밭에 비가 내리고 태양이 비쳐 만물이 성하게 하듯 대운에서 발복하게 됩니다. 곡각살(曲脚殺)로 교통사고나 병으로 수족을 못 쓰게 되거나 신경통으로 고생할 수 있으나 이점을 주의하여 조심을 일상화 해보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2월 5일(음 10월 14일) 김학수 인생상담

쥐: 48년생 가족이 한자리 모이니 즐겁다. 60년생 답답한 일은 사전에 차단하라. 72년생 단짝 끈이 열릴 것이다. 84년생 연인과 쓸데없는 감정싸움에 답답~

소: 49년생 흥분하지 않도록 할 것. 61년생 목소리 높이면 잃는 게 많다. 73년생 잘 못은 그 자리서 바로 잡아라. 85년생 좋은 일에 이름이 거론되어 즐겁다.

호랑이: 50년생 반가운 벗이 찾아온다. 62년생 칭찬은 한귀로 듣고 그냥 흘려라. 74년생 정성 쏟은 일은 결실 맺는다. 86년생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아라!

토끼: 51년생 먼거리 출장은 삼가라. 63년생 마음을 열면 새 길 보인다. 75년생 남들이 안 하는 일에 주목하라. 87년생 프러포즈하기 좋은 골든타임이다.

용: 52년생 급하면 남과 다툰다. 64년생 깨우치며 살게 주는 말 많도록 조심~ 76년생 질사에 뉴화카드가 필요하다. 88년생 민감한 일은 즉답은 피하라.

뱀: 53년생 요구할 땐 확실히 하라. 65년생 선택한 일은 만족감 느낀다. 77년생 이간질 하는 동료가 있으니 조심~ 89년생 달콤한 데이트에 넋이 뺏다.

말: 42년생 걱정한 일은 해결된다. 54년생 행사은 딱한 변수에 대비할 것. 66년생 쟁미가 조원을 질주하는 격이나 78년생 일이 꼬여도 희망은 버리지 말라.

양: 43년생 순조로울 때 조심할 것. 55년생 외출하면 얼굴 붉힐 일 생긴다. 67년생 자기 버리고 가족 생각할 것. 79년생 부모가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원숭이: 44년생 생각도 못한 곳에 생긴다. 56년생 가감의 존재감을 보여주라. 68년생 낯설지만 됫할이 그럭한 사람 만난다. 80년생 지나간 일에 고집 부리지 말라.

닭: 45년생 거절은 확실히 할 것. 57년생 푸른색 계통에 행운이 따른다. 69년생 나와 연관 없는 일엔 나서지 말라. 81년생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격이다.

개: 46년생 한턱 쏠 경사가 생긴다. 58년생 한 가지에 일에만 집중할 것. 70년생 선택의 기로서 고민할 일 생긴다. 82년생 주변 유혹에 흔들리지 말라.

돼지: 47년생 주변 의견에 귀 기울여라. 59년생 빈 집에 황소가 들어온 격이다. 71년생 같은 실수 반복 않도록 조심~ 83년생 좋은 결과에 칭찬이 쏟아진다.

www.icevalley.kr

밀양시

밀양이 춤춘다 밀양을 노래한다

제17회 밀양 얼음골 사과축제

The 17th Miryang Icevalley Apple Festival

일시 _ 2014년 12월 6일(토) ~ 7(일)

장소 _ 서울 청계천광장

주관 _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

후원 _ 농림축산식품부,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농협

12월 6일 _ 토

얼음골사과요리경연대회

12월 7일 _ 일

얼음골사과축제 참여이벤트(사과 무료증정)

밀양얼음골사과 서울나들이공연

러시아가수 나디아, Man3E, 여창민, OK, Love

밀양얼음골사과 드시러 오세요~~!!

얼음골사과발전협의회영농조합법인